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주마 제대로 알기

『競馬 馬の見方がわかる本』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日科

李尙姬

2012年 12月14日

## 역자서문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말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아버지의 말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묵묵히 가업을 이어가는 남동생의 모습 속에서 나 또한 말과 함께 해왔다. 논문에 대해 고민하던 어느 날, 동생은 지인이 몇 년째 일본어를 몰라 그림만 보고 있다는 말에 대한 책을 한권 소개해 주었다. 번역하면 자료가 부족한 생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에 짧은 실력이지만 주저 없이 번역에 착수하였다.

1984년 한국마사회가 직영하는 종마목장이 개설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때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경주마를 국내에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1991년 경주마 자급 확대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다. 이 계획에 따라 1992년 37곳의 경주마 생산 농가가 선정되었다. 현재 한국마사회가 선정한 143농가 중 116농가가 제주 지역 농가이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오랫동안 제주마를 길러온 농가가 주축이 되어 경주마를 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을 보는 법을 배운 농가는 드물다. 많은 농가가 좋은 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말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이 책은 말을 보는 법에 대해 저자가 오랫동안 길러온 자신의 안목과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와 마주들이 좋은 말을 가려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본문에 나오는 말의 각 부분을 지칭하는 명칭 등의 전문용어는 수의학적인 전문용어 보다는 생산 농가, 마주, 조교사, 경마 방송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와 한국마사회의 경마 용어 순화어를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그리고 농가와 경마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역이므로 전문용어에는 주석을 달지 않고, 일본의 경주마와 일본 경마 경주이름에만 주석을 달았다. 경주마에 대한 주석은 경주마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통산성적을 위주로 하였고, 경마 경주 이름은 일본어를 음역하였다.

오랜 시간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지도해 주신 반노신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격려해 주고 기다려준 남편 김승대와 사랑하는 민서, 동규, 연서, 많은 도움을 주신 시택과 친정가족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광림, 광협 두 동생과 이은순 언니, 흔쾌히 자료를 내어주신 대한목장 정병철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평생을 말과 함께 살아오신 아버지 이용대님께 이 논문을 바친다.

## 국문 초록

저자 이토 도모야스는 1959년 호스 뉴스사에 입사한 후, 경마 전문지 『말』 편집에 종사하면서 말과 인연을 맺었다. 저자는 본서에서 1985년부터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보고, 1988년부터 20년 넘게 경마 해설을 하면서 다져온 말을 보는 법을 자신의 감각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제 1 장 ‘더러브렛의 체형을 본다’, 제 2 장 ‘패독에서 출주마를 본다’, 제 3 장 ‘예시에서 말과 기수를 본다’, 제 4 장 ‘경주를 본다 · 말의 주행을 본다’, 제 5 장 ‘조교의 의미를 파악하고 말의 움직임을 본다’ 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 1 장에서는 말의 골격도를 제시하여 골격이 체형·자세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와 말을 평가할 때 주목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말의 바람직한 특징과 결점이 되는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이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서는 경주마를 사는 마주나 번식마를 골라야하는 생산 농가에게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1984년 한국마사회가 직영하는 종마목장이 개설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때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경주마를 국내에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 1991년 경주마 자급 확대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다. 이 계획에 따라 1992년 37곳의 경주마 생산 농가가 선정되었다. 현재 한국마사회가 선정한 143농가 중 116농가가 제주 지역 농가이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오랫동안 제주마를 길러온 농가가 주축이 되어 경주마를 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을 보는 법을 배운 농가는 드물다. 현재 한국마사회와 경주마 생산자 협회에서 농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 농가가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본서는 말을 보는 법에 대해 저자가 오랫동안 길러온 자신의 안목과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와 마주들이 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는 1995년 池田書店에서 발행한 『競馬 馬の見方がわかる本』의 第1章 「サラブレットの形を見る」、第2章 「パドックで出走馬を見る」、第3章 「返し馬で馬と騎手を見る」、第4章 「レースを見る・馬の走りを見る」、第5章 「調教の意味をつかんで馬の動きを見る」중 제 1장을 수록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경주마명과 일본 경마 경주이름은 일본어를 음역하였습니다.

## 책을 펴내며

경마는 말을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보는 것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조교, 패독, 예시, 경주뿐만 아니라 예상과 마권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을 본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마권을 산 말이 어떤 말이며 마권을 사지 않은 말과 어떻게 다른가를 모른다면, 결과적으로 경마에서 돈을 따든 잃든 무언가 납득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을 것이다. 그 허전함을 만족감으로 바꾸고자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렇게 큰소리쳤지만 실제로 말을 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눈이며, 말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의 감성이다. 책을 읽고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눈과 감성이 납득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말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말의 매력에 흠뻑 빠져야 한다. 말의 매력에 빠지지 않으면 말을 볼 수 없다. 이것이 필자의 솔직한 느낌이다.

물론 빠지는 대상이 어떤 말이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이왕 말에 빠진다면 좋은 말에게 빠졌으면 한다. 이 말은 왜 잘 달리지 못하는지 추궁하기보다, 이 말은 어째서 잘 달리는지 주목하는 편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좋은 말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이목을 끈다. 심볼리루돌프나 나리타브라이언은 얼핏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빛난 것은 다른 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말을 관찰하다보면 달리기 전부터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말이 있다. 스키캡틴이나 후지기세키도 첫눈에 반했다. 그러나 비와하야히데는 릿토(栗東) 트레이닝 센터에서 조교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말이었다. 같이 말을 보러간 기자가 그 말이 간사이(關西)의 3세마 중에서 가장 잘 달리는 말이라고 하기에 그때서야 눈여겨보게 되었다. 말을 보니 목에서 어깨까지 너무 살이 붙어있었고 허리도 통통하였다. 달리는 것을 보아도 유연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조교 내용도 채찍질을 해서 마지막 600m를 42초나 걸려 달릴 정도로 전혀 빠르지 않았다. 솔직히 어떻게 이런 말이 최고 기록으로 승리했는지 믿기지 않았으나, 다음 경주에서도 압승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 말은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필자가 찾아내지 않아도

좋은 말은 보는 사람을 매혹시킨다. 흥미를 느껴 주목하고 응원을 하는 사이에 대상경주와 같은 큰 경주에 나가게 된다면 그 말이 출주하는 경주는 꼭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흠뻑 빠진 말을 계속 지켜보는 동안 말의 성격과 특징 등 그 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말이 성장하면 마체의 변화도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필자는 그린그라스를 보았을 때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 1973년 봄에 나카노 다카요시(中野隆良) 조교사와 함께 아오모리에 있는 목장에서 태어난 지 3주 된 그린그라스를 보았다. 그 때의 인상이 매우 강렬하였다. 그때까지 많은 당세마를 보았지만 이 말처럼 감명을 준 말은 없었다. 무엇보다 얇은 피부에 눈을 뵈 수가 없었고 마체의 균형 또한 매우 뛰어났다. 당세마는 대체로 다리가 길어서 어린 사슴과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 말은 허리와 어깨가 튼튼하고 네 다리가 곧게 뻗어 있어 탄력도 있었고, 이미 소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체형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영리해 보이는 얼굴에 몸짓 또한 귀여웠다.



▲그린그라스 (은퇴후)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흑갈색 인형과 같은 정말 멋진 말이었다. 이 말의 주인인 한자와 기치시로(半澤 吉四良) 씨가 “이 말은 신이 점지해 주신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그린그라스를 보러갔던 것은 단순히 우연은 아니었다. 이 말의 모마인 종빈마 달링히메는 마지막 직선

주로를 단번에 몰아붙이는 뒷심이 뛰어난 명마로 여걸이라 불렸다. 그 말의 자마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 후 필자는 조교를 받고 첫 출주를 한 후 은퇴한 7세 때까지 계속 눈여겨보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그라스는 도쇼보이, 텐포인트와 같은 시대의 경주마로 5세 최강 시대를 이끌었다. 그린그라스는 도쇼보이, 텐포인트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다만 전형적인 장거리마 체형마로, 대형마이기도 해서 종종 어깨와 무릎 부상에 시달린 말이었다. 그래서인지 4세 때는 좀처럼 우승을 하지 못했고 깃카쇼(菊花賞)에 출주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출주를 취소하는 말이 생긴 덕분에 막판에 출주권을 얻었는데, 그 행운을 잘 살려서 멋지게 깃카쇼의 우승마가 되었다.

당세마의 모습에서 깊이 감명을 받은 그린그라스의 인상은 성마(成馬)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볼 때마다 위대해지는 모습에 갈수록 빠져들었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만나고 함께 걸었던 몇 년 동안, 필자는 말을 보는 안목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의 매력에 흠뻑 빠질 것을 권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말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을 때 이 책이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서를 집필하는데 조언을 해주신 닛칸겐다이(日刊現代)의 스스키 가스유키(鈴木和幸) 씨, GI팜의 구로이와 하루오(黒岩晴男) 씨, 오랫동안 가르쳐 주신 구로사카 히로키(黒坂洋基) 조교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토 도모야스 (伊藤友康)

# 목 차

책을 펴내며 .....	5
제 1장 더러브렛의 체형을 본다 .....	9
어떤 근거로 좋은 말이라고 하는가 .....	9
장구단배가 경주마의 이상적인 모습 .....	10
경매시장과 패독에서 말을 보는 관점 .....	12
측면에서 소질보기 ① 전체의 균형 .....	14
측면에서 소질보기 ② 유연한 목과 작은 얼굴 .....	25
측면에서 소질보기 ③ 허리폭과 발달상태 .....	28
측면에서 소질보기 ④ 완만한 유선형의 등 .....	33
측면에서 소질보기 ⑤ 앞다리와 뒷다리의 역할 .....	36
측면에서 소질보기 ⑥ 얇은 피부 .....	41
측면에서 적성보기 ① 어깨 각도와 거리적성 .....	43
측면에서 적성보기 ② 발목의 형태와 코스 적성 .....	48
앞·뒤에서 보기 ① 앞다리·가슴폭·허리 .....	52
앞·뒤에서 보기 ② 발굽의 형태와 주로 적성 .....	53
앞·뒤에서 보기 ③ 턱·꼬리·얼굴 .....	55
걷는 모습 보기-기질과 성질 .....	57
성질·기질 보기-온순함과 승부 근성 .....	59
참고자료 .....	66

## 제 1 장 더러브렛의 체형을 본다

### 어떤 근거로 좋은 말이라고 하는가

경마장에서 빼어나게 훌륭한 말을 발견하고 감탄하면서 정말 좋은 말이라고 혼잣말을 할 때 곁에서 그 말에 동감해 주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사람과 같이 경마를 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말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어느 말이냐고, 어디가 좋은지 되묻는다. 보면서도 모르겠느냐고 말하고 싶지만 되묻는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필자에게도 처음에는 모든 말이 다 비슷하게 보이고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전혀 모르던 시절이 있었으니 말이다.

### 말을 보는 눈을 뜨게 되다

말을 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을 봐야 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경마중계방송 해설을 맡고 난 후부터 나름대로 말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설을 하게 된 덕에 꼬박 24년 동안은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경마를 보아왔으며 미호(美浦)트레이닝 센터까지 조교 모습을 보러 다녔다. 이렇게 24년 동안 말을 보는 안목을 기른 셈이다.

물론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다. 말을 보는데 미숙했고 십여 분 뒤에는 해설 결과가 나와 버렸다. 그래도 2~3년이 지나자 상당히 자신감이 생겼다. 그 즈음부터 어느 정도 말을 보는 안목도 생겼다. 필자는 경주 해설만 담당하고 패독 해설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패독 해설을 듣고 있자면 주목해야 하는 말을 놓치거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경주를 보면 필자의 생각이 맞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부터 말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지만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말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약 10년 전부터이다. 잘 아는 마주의 부탁으로 국내외의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보게 되었고, 필자가 고른 말이 모두 탈락하지 않고 경주마로 달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을 볼 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더러브렛의 체형

그러면 눈앞에 있는 말의 어디가 어떻게 좋다는 것일까. 그것은 체형, 피부의 얇기, 유연한 움직임, पै기 등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기질과 정신력도 많이 관련되어 있지만 기본은 무엇보다 체형이다. 좋은 체형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명마는 모두 체형이 아름답다. 그 중에는 체형만 번지르르한 말도 있지만 불품없는 명마는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더러브렛의 체형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물론 경마를 즐기는 정도의 팬이라면 경매시장에서 말을 감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패독과 예시에서 말을 볼 때, 말의 컨디션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도 말을 보는 안목을 기르기로 했다면 그 체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야말로 말을 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 장구단배(長軀短背)가 경주마의 이상적인 체형

좋은 말의 전형적인 체형을 이야기 할 때 장구단배(長軀短背)라는 말을 한다. 이는 등선이 짧고 배선이 긴 체형으로, 이런 말이 보다 뛰어난 속도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부터 전해오는 말이지만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러브렛의 체형에 대한 윤곽이 더 선명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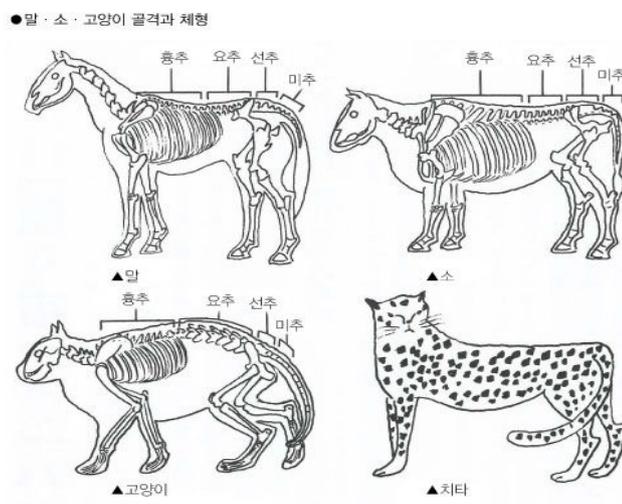
단배(短背)는 튼실한 허리를 의미

등이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목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척추선의 한 가운데 즉, 목과 허리 사이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목과 허리는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등은 안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말의 등을 보면 요골이 조금 위로 올라가고, 요골에서 꼬리 쪽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등과 구별되는 허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가축 중에 말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리 봐도 둔하게 보이는 소가 있다. 빨리 달리는 것을 애초부터 기대도 하지 않는 소의 체형을 말과 비교해 보면, 둔부 형태 차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소의 엉덩이는 뒤로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등뼈가 평평하고 요골의 위치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몸의 후단까지 등이 길게 이어져 보이며, 이로 인해 허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등이 짧다는 것은 허리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의미이다. 허리는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발이 빠른 동물로 치타를 비롯한 고양이과의 동물을 들 수 있다. 고양이과의 동물은 등뼈가 활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므로 자세에 따라서는 등의 절반이 허리로 보이기도 하여 등이 짧은 인상을 준다.

장구(長軀)는 넓은 보폭을 실현한다



[그림 1-1]

당나귀도 등이 길다. 당나귀의 체형은 소보다 말에 가깝지만 허리는 말보다 뒤쪽에 위치해 있다. 당나귀는 몸통이 짧아서 배도 짧다. 그렇기 때문에 소보다는 낮다고는 하더라도 역시 속도감은 없다.

이와 달리 고양이과 동물은 요골이 등뼈 후단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몸통이 길고 배선도 넉넉하게 길다. 그만큼 몸을 크게 펴서 다리를 앞뒤로 길게 벌려 보폭을 넓힐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말도 몸통이 짧고 배선이 짧은 체형보다 배선이 길어야 좋은 체형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주마의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장구단배(長軀短背)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체형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경매시장과 패독에서 말을 보는 관점

소와 말의 체형의 차이는 뚜렷하다. 그러나 같은 경주마끼리 비교해서 그 차이를 구분하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부터 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말을 볼 것인가. 대부분의 경마 팬들이 경주마를 가까이에서 보는 장소는 패독이다. 필자도 오랜 기간 그렇게 해 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약 10년 전부터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보면서 더러브렛의 체형을 찬찬히 볼 기회를 얻었다.

#### 패독과 경매 시장에서 말을 보는 시각

패독에서 출주마를 보는 것과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보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말을 관찰하는 시간부터 다르다. 출주마가 패독을 도는 시간은 겨우 15분인데 그 사이에 10여 두의 말을 살펴봐야 한다. 성적과 조교를 비롯한 출주마들의 능력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패독에서 말을 볼 때는 그날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의미가 강하다. 패독은 말의 체형을 찬찬히 살펴보는 장소는 되지 못한다.

반면에 경매시장에서는 차분하게 말의 체형을 볼 수 있다. 혈통 등에 따라 어느 정도 기대는 하지만, 능력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체형과 모습에서 소질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완성 상태인 2세마를 보기 때문에 현재의 골격에서 성장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소질을 판단한다. 이른바 보석의 원석을 음미하는 감각으로, 이미 상품으로 전시되고 있는 패독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말을 본다.

다만 상품을 판별하고 평가 할 때 생산과 구입에서 길러진 안목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경매시장에서 많은 2세마를 보아 둔 경험이 패독에서 출주마를 볼 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신마경주 등 어린 말이 나오는 패독에서 소질이 있는 말을 발견했을 때 기쁨은, 경매시장에서 좋은 말을 만났을 때 기쁨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는 필자가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보는 관점과 순서를 소개하고 러브렛의 체형과 패독에서 말을 보는 시각도 소개하겠다.

#### 경매시장에서 말을 본다

필자가 잘 아는 마주에게 부탁을 받아 2세마를 보러 가는 곳은 국내는 주로 홋카이도이며, 해외는 미국 켄터키주 킨랜드에서 열리는 세계최고 수준의 1세마 경매인 이어링 세일에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그 외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경매도 보았다. 경매시장에서 말을 볼 때는 우선 사전에 말의 명부를 보고 종모마와 종빈마의 혈통을 검토해서 뛰어날 것 같은 말을 선발한다. 이어링 세일의 경우라면 500두 가까운 말 가운데 약 70두 정도를 골라낸다. 경매장 근처에는 경매에 내놓을 말의 마사가 있고 경매가 열리기 1주일 정도 전에는 이미 말들이 입사해 있기 때문에 현지의 에이전트에게 의뢰해서 골라놓은 70두를 미리 보고 ABC로 순위를 매겨 달라고 부탁한다. 여기서 30두 정도가 걸러진다.

필자와 일행은 경매가 시작되기 2~3일 전에 현지에 가서 남은 40두의 말을 순서대로 본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마사를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도록 일행과 떨어져 개별적으로 말을 보러 다닌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일행과 비교해 가면서 25두 정도를 고른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수의사의 진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20두 정도를 골라낸다. 그 후에는 마주와 함께 경매시장에 가서 합당한 가격의 말을 낙찰 받는다. 2세마를 낙찰 받는 순서는 대충 이렇다.

### 측면에서 소질 보기 ① 전체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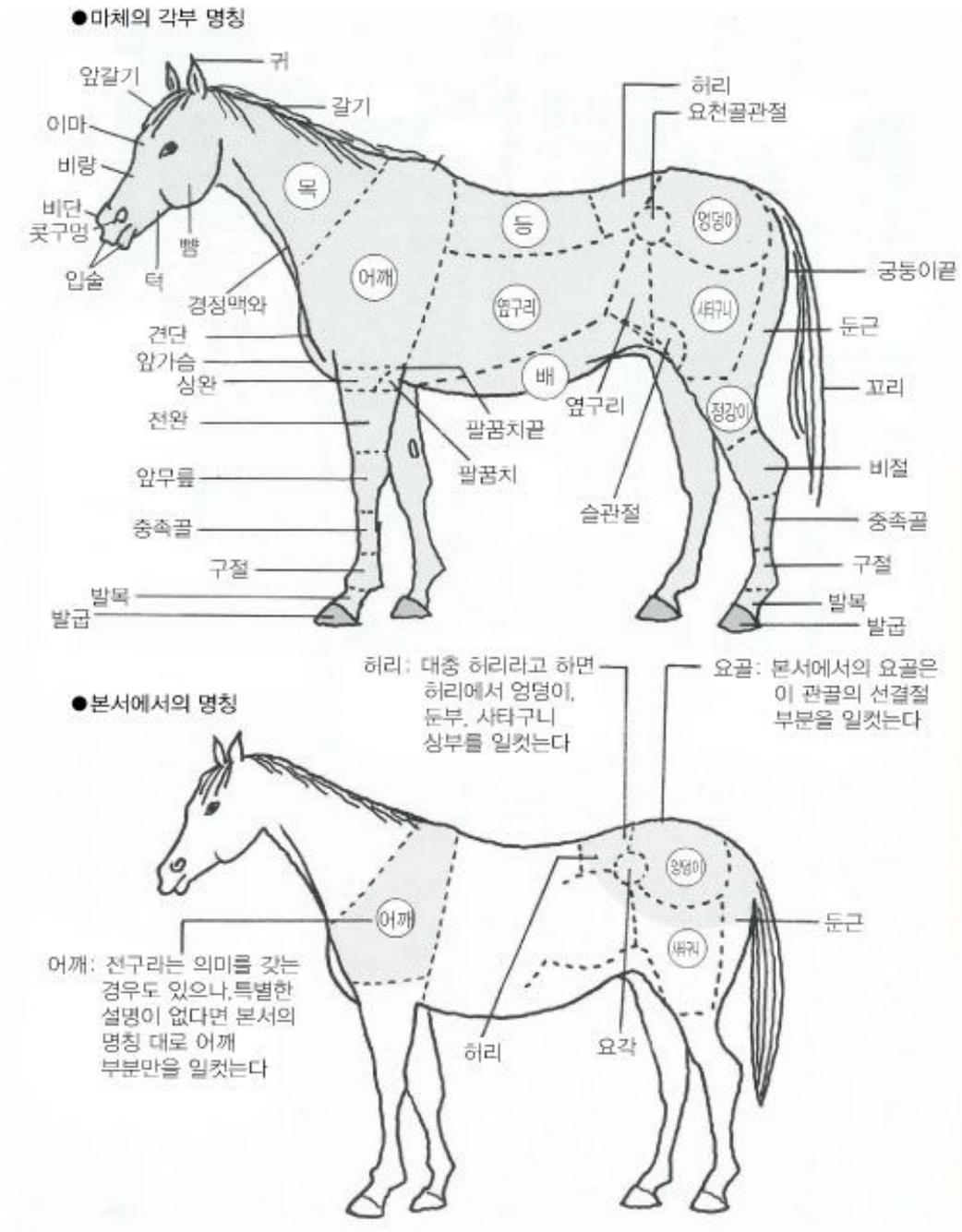
경매시장에 나온 말 중 지목한 말을 보고 싶다면 그 말이 있는 마사 관리인에게 부탁하면 마사에서 말을 꺼내 준다. 말이 나오면 우선 정지시켜서 측면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본다. 여기서 얼핏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것으로 불합격시키고 다음 마사로 간다. 이 판단은 다분히 직감적인 것이지만 물론 그 직감에는 근거가 있다. 결점이 있다면 얼핏 봐도 바로 눈에 띄기 때문이다.

#### 말 전체의 균형이 평가 기준

그러한 결점들은 대부분 마체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과 어깨, 어깨와 허리, 몸통과 다리의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은 경우는 바로 탈락시킨다. 허리와 다리 등 마체 일부의 결함을 발견하여 평가를 끝내는 경우도 있다. 목, 어깨, 허리, 피부, 다리, 가슴 등 각 부분에는 그 나름대로 몇 가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 좋고 나쁘다는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 말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정도의 판단도 한눈에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초보자는 마체의 각 부분을 자세히 보면서 보는 눈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사이 세세한 부분까지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고 미묘한 차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항상 전체를 보는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명마는 목으로 달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몸 전체로 달리고 있다. 목만으로 달리거나 허리만으로 달리지 않는다. 따라서 말을 볼 때는 전체의 균형이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어느 부분을 어깨와 허리라고 하는가



[그림 1-2]

전체적인 균형을 볼 때 중요한 요소는 어깨와 허리이다. 이것이 말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미리 말해 두고자 한다. 그림 1-2 마체의 각부 명칭에서와 같이

허리란 학술적으로는 요골(선결절) 바로 앞의 매우 좁은 부분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경마관계자가 말을 보면서 허리가 빈약하고 할 때 허리란 그림 1-2의 마체에서 본 명칭 그림처럼 좀 더 넓은 범위를 가리키고 있다. 즉 허리에서 엉덩이, 둔부, 사타구니 상부를 가리킨다. 더욱이 골격도를 보면 경마관계자가 요골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골의 끝으로 선결절 부분이며 요추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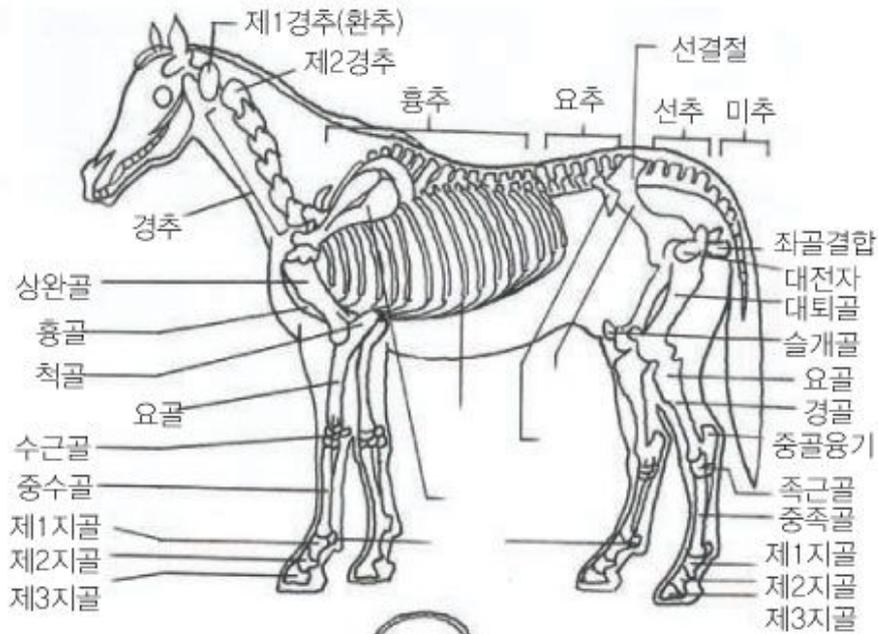
그런데 인체에 대한 명칭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말의 골격도와 인간의 골격도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인간의 경우도 관골 선골 미골을 합친 골반 부분, 뒤에서 보면 엉덩이 부분을 허리라고 부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가 굽다고 하면 관골의 좌우 폭이 넓다는 의미로, 경마관계자가 말의 허리에서 엉덩이 부분을 허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서에서 포괄적으로 허리라고 할 경우에는 경마관계자들이 말하는 허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좁은 의미의 허리라고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어깨는 그림 1-2 마체의 명칭에서 표시한 부분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깨와 허리의 균형 등이라고 대략적으로 말할 때에는 어깨와 함께 앞가슴 부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동작의 흐름을 중시하여 이렇게 부르는 것 같다. 허리가 원동력이 되어 도약하는 뒷다리의 박차를 앞다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앞다리의 움직임은 어깨와 가슴의 근육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어깨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가슴을 제외한 마체의 명칭에서 표시한 어깨부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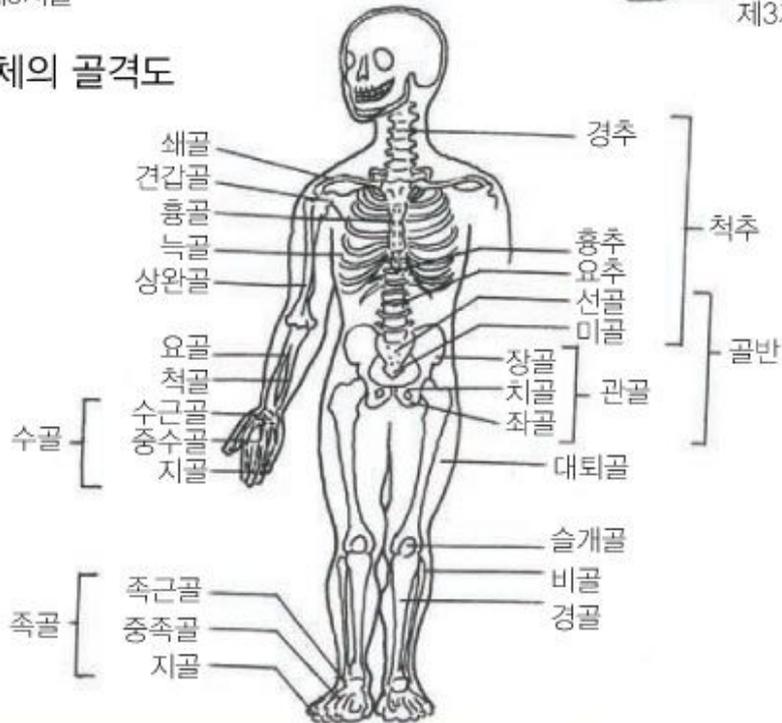
#### 전구(前軀)의 균형 어깨와 허리의 균형

필자가 말을 볼 때 맨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목에서 어깨를 포함한 전구(前軀)의 균형이다. 자세히 보면 말의 목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목이 길고 가늘다면 그 목에 어울리는 어깨인지를 본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깨가 고추선 듯한

●마체의 각부 명칭



●인체의 골격도



[그림 1-3]

목에 어울리는 어깨인지를 본다. 가는 목은 누운 어깨에서 쪽 뻗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균형을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구(前軀)와 후구(後軀)의 균형을 확인한다. 즉 어깨와 허리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깨 크기는 대부분 마체의 크기와 비례해 결정되는 것으로 필자가 보기에는 거의 일정한 것 같다. 그에 비해 허리는 다양하다. 몸이 큰데 비해 허리가 빈약하거나 필요이상으로 허리가 큰 말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깨와 허리의 균형을 살펴 볼 때에는 어깨를 기준으로 허리 크기를 평가한다.

어깨를 볼 때에는 기갑에서 앞가슴까지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본다. 허리 크기는 허리에서 둔부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필자가 말을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 두 부분의 크기를 비교한다. 물론 실제로 재지는 않지만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직감이다. 그리고 어깨 크기를 10이라고 하면 허리 크기는 8이다. 이것이 이상적인 체형으로 허리 크기가 7이어서는 곤란하다. 허리가 빈약한 말이 잘 달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허리 크기가 9여서도 안 된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다만 이것은 측면에서 볼 경우의 균형을 말한다. 오해하지 않도록 덧붙이자면 말을 바로 위에서 보면 오히려 허리가 어깨보다 크다. 이때 허리를 10이라고 하면 어깨는 7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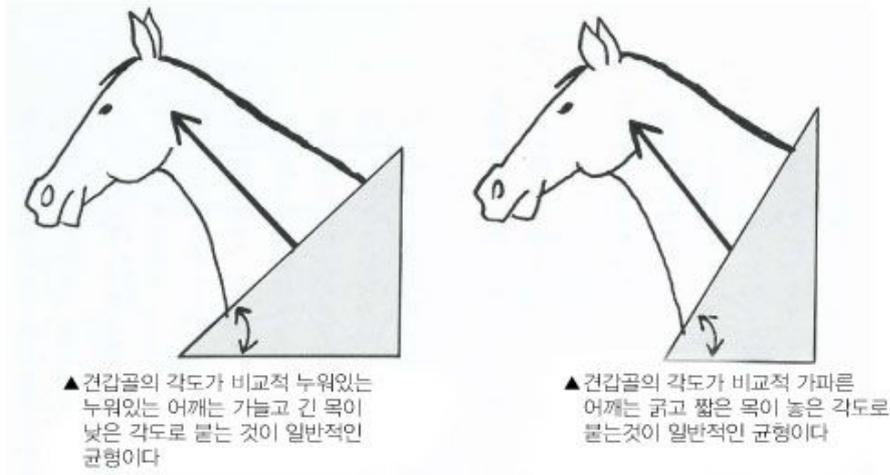
패독에서는 다양한 균형을 보이는 말이 있다

이러한 비교는 성장과 훈련에 의해 근육이 붙어 가면 한층 뚜렷해진다. 패독에서 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패독은 매우 흥미로운 곳이다. 패독에 나온 말은 모두 혈통이 우수한 말이고 선별된 더러브렛이지만 잘 보면 천차만별이다. 다양한 모습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허물없는 친구와 패독에서 말을 볼 때는 품평하는데 여념이 없게 된다. “좋은 말인데, 더러브렛의 견본처럼 아름다운 말이야”할 정도로 녀을 잃게 만드는 말이 있는가하면, 그 중에는 “저것 좀 봐봐. 말들 사이에 소가 걷고 있어”, “웬지 하이어나처럼 보이는 말이 있네”, “저건 세퍼드잖아”, “완전 코끼리군” 등등, 마주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가차 없는 비평을 쏟아내게 하는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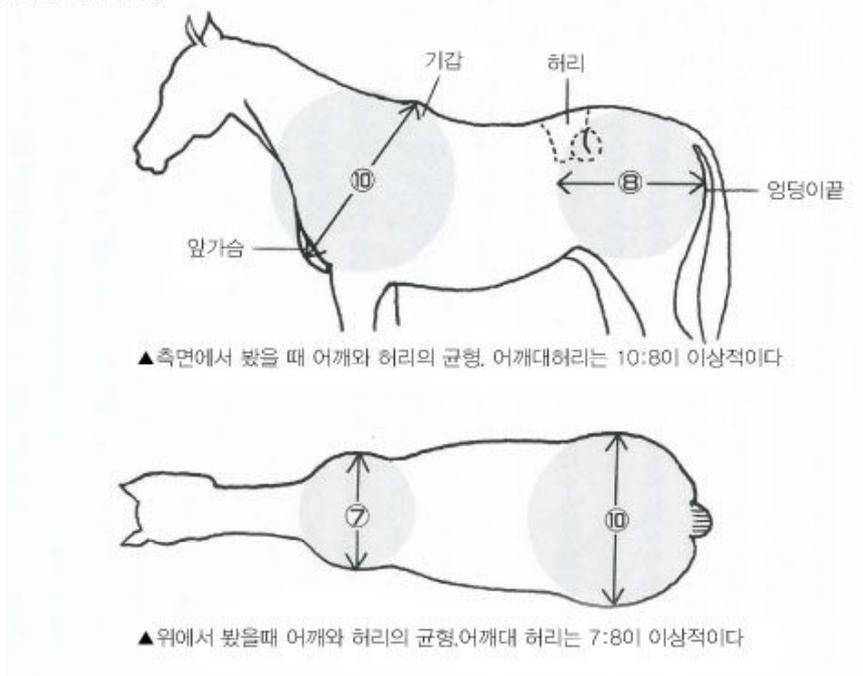
이런 비유는 더러브렛으로서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것은 경주 당일의 마무리 상태와 그 말의 움직임등도 포함된 느낌이다. 예를 들어 소

같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이 긴 체형의 말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선이 둔해서 엉덩이가 튀어나온 느낌을 준다. 그런 체형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느낄 수 없고 아무리 봐도 둔하게 보인다.

●목과 어깨의 균형



●어깨와 허리의 균형



[그림 1-4]

그리고 하이어나처럼 보이는 말은 어깨에 비해 허리가 빈약한 체형으로, 이런 말은 어깨와 마찬가지로 머리와 목도 필요 이상으로 튼실하기 때문에 허리가 처

져 보인다. 즉 엉덩이 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체형으로 아무리 봐도 허리에 힘이 없어 보인다.

세퍼드처럼 보이는 말은 골격이 전체적으로 빈약해서 배에도 여유가 없고 아랫배가 사타구니 사이로 일직선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의 걸음걸이는 몸 전체를 앞으로 힘차게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발끝으로만 걷는 것 같은 불안하고 힘없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날씬한 체형이지만 필요이상으로 마른 말에게서도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

반대로 코끼리처럼 보이는 말은 전체적으로 너무 체형이 크다. 힘 있는 단거리마의 경우에는 확실히 전구나 후구도 크고 다부진 모습이지만 필요한 부분에 알맞게 근육이 발달해 있다. 그러나 코끼리처럼 보이는 말은 근육이 팽퍼짐해서 분명치 않다. 말은 측면에서 보면 다부지게 보이지만 앞이나 뒤에서 보면 이외로 부피감이 없다. 그런데 코끼리처럼 보이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부피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둔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체형은 겨울철이나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난 말에게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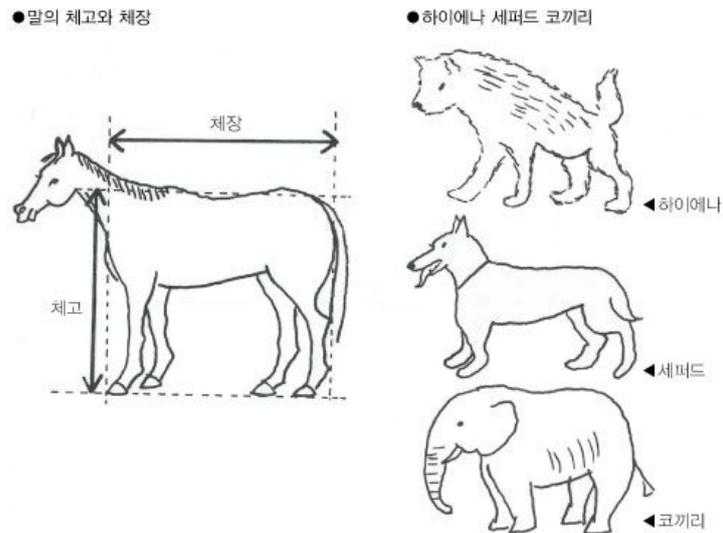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체형을 한 말 중에 명마는 없다. 소질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비록 그 날은 잘 달리더라도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경주를 끝으로 앞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승군을 한 후에는 그 말의 마권을 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결정도 패독에서는 필요하다.

#### 체고(體高)와 체장(體長)의 균형

더러브렛은 목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발굽 끝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체고(體高)와 앞가슴에서 둔단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체장(體長)의 길이가 같은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몸통이 상당히 짧은 말이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체고보다 체장이 짧을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리 보아도 장거리에 적합해 보이는 몸통이 긴 말이란 느낌이 든다.

따라서 체고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단거리마는 체장이 다소 짧고, 장거리마는 그 반대이다. 근육이 잘 발달한 단거리마와 날씬한 장거리마는 체고보다 체장이 짧은 말과 체장이 긴 말로 나뉘는데 그것은 단순히 말이 주는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단, 종마로 활약하는 말은 장거리마와 단거리마로 나뉘더라도 모두 명마로, 종마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체고와 체장이 거의 같을 것이다. 다리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체고가 체장보다 길 것이다.



[그림 1-5]

### 부마와 닮았는가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얼핏 보았을 때 부마를 닮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다. 부마를 닮았다는 것은 부마의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증거이다. 반대로 닮지 않았다면 부마에게 물려받은 재능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실제로 부마를 닮은 말들은 예외 없이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내지만, 닮지 않은 말 중에는 잘 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입 종마인 샌디 사이렌스<sup>1)</sup>가 그 자마들의 활약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모든 자마가 부마의 체형을 빼닮았다. 그 중에서도 후지기세키<sup>2)</sup>가 부마를 제일 많이 닮았다. 사진 1-2의 나라타브라이언<sup>3)</sup>은 프라이언즈타임<sup>4)</sup>의 자마인데 부마와 비교해 보면 놀

1) 1986~2002, 미국산 경주마 종모마

2) 일본 경주마 종모마. 1994년 아사히배 3세 스테이크스에서 우승. 굴건염으로 은퇴후 종모마로 활약 통산성적 4전4승

라울 정도로 닳았다. 다리는 조금 짧지만 체고와 체장의 길이가 거의 같고 매우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그리고 어깨와 허리의 균형을 보면 10대 8.5 정도이다. 일반적인 균형보다 허리폭은 넓지만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분이 꺾어서 결코 허리가 커 보이지 않고, 앞모습이나 뒷모습이 빈틈없이 균형이 잘 잡혀있다. 이런 부마의 이점을 나리타브라이언은 모두 물려받았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느낌이 든다.



▲브라이언타임 수입 종모마



▲비와하야히데, 은퇴후(5세)부마는 샤르드, 모마는 나리타브라이언과 같은 퍼시피카소



▲나리타브라이언 1994년 아리마 기념우승후(4세)  
[사진 1-2]

모마가 같아도 부마가 다르면 체형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리타브라이언의 형인 비와하야히데(사진 1-2)를 살펴보자. 나리타브라이언은 얼굴이 작은 것이 특징인데 비와하야히데는 얼굴이 길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다리 그리고 몸통도 길다. 그리고 비와하야히데는 부마도 닳지 않았다. 부마인 샤르드는 얼굴이 짧고 몸통과 목도 굵고 짧다. 어깨와 허리가 다부진 마이라 계열의 체형이다. 비와하야히데가 3세였을 때에는 부마의 생김새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

3) 1991~1998, 일본 경주마 종모마. 일본 중앙 경마사상 다섯 번째 클래식 경주 3관마. 1993년 데뷔. 1996년 굴건염으로 은퇴. 통산성적 21전 12승

4) 1985년생, 미국 경주마, 플로리다 더비와 베가서스 핸디캡 우승 후 일본에 종모마로 수입

후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샤르드의 부마 카로<sup>5)</sup>는 장거리에 적합한 대형마였기 때문에 그 혈통을 이어받았거나 모마를 닮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비와하야히데는 부마를 닮지 않아도 잘 달린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다. 다만 그런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 경매시장 마사에서 본 2세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사진 1-3의 오른쪽 위의 말을 보자. 이 말은 미국 경매시장에서 본 2세마인데 언뜻 보았을 때 균형적인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고 피부도 얇고 몸도 유연해 보인다. 어깨의 각도는 누워있고, 그 어깨로부터 자연스럽게 목이 뻗어있다. 이 말은 노던댄계<sup>6)</sup> 혈통인데 어깨의 근육은 성장하면 더욱 훌륭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어깨에 대한 허리폭도



▲런홀테



▲에이피인디



▲조금 통통한 2세마

[사진 1-3]

- 
- 5) 1967~1989 아일랜드산 경주마 종모마
  - 6) 세계 더러브렛 경주마의 3대 혈통중 가장 영향력 있는 혈통.  
3대 혈통-노던댄서계, 라스룰라계, 네이티브댄서계

충분하고 형태도 좋다. 더욱이 다리가 너무 길지도 않고 체고와 체장의 균형도 잘 맞는다. 사실 이 말은 필자가 잘 아는 마주가 낙찰을 받았다. 그 후 일본으로 와서 런홀테<sup>7)</sup>라는 명마로 중앙 경마에 데뷔하였다. 신마경주에서는 늦발주로 4착을 했지만, 두 번째 출주에서는 1998년 텐노쇼(天皇賞)<sup>8)</sup> 2000m경주에서 우승한 오프사이드트랩<sup>9)</sup>을 5마신 차로 따돌리고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후 경주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부상을 당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은 전미 챔피언 에이피인디<sup>10)</sup>의 2세 때의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쪽 뺨은 아름다운 목선을 주목하기 바란다. 기갑, 등, 허리로 이어지는 선도 완만하고 근육이 적절하게 잘 발달해 있으며, 기갑에서 가슴까지 이어지는 어깨선도 무척 자연스럽게 아름답다. 목, 어깨, 등, 허리 등의 주요 부분의 균형이 매우 잘 잡혀 있고, 그 부분들을 잇는 선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이 이 말의 장점이다. 어깨폭과 허리폭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실로 이상적인 체형의 말이다. 다만 발목이 짧고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 잔디코스보다 더트코스에 잘 맞기 때문에 미국 더트코스의 제왕이 되었다.

밑에 있는 조금 통통한 2세마 사진을 보면 몸의 선은 낙낙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에이피인디와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목이 짧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갑에서 앞가슴까지 살이 찌있고 땅딸막해서 에이피인디와 같은 유연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장래의 늠름한 체형은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훈련을 받아 몸이 만들어진다면 나아지겠지만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도 말의 체형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1991년생, 미국산 일본 경주마. 통산성적 4전 1승

8) 일본중앙경마회(JRA)가 일년에 두 번 (봄과 가을)개최하는 대상(G1)경주

9) 1999년생, 일본 경주마 종모마. 굴경염 세 번 극복.1998년 텐노쇼(가을) 등에서 우승. 통산성적 28전7승

10) 1989년생, 미국 경주마. 1992년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우승

## 측면에서 소질보기 ② 유연한 목과 작은 얼굴

더러브렛은 달리는 보석이라 불리듯이 경주마는 무엇보다 아름다워야 한다. 그 증거로 명마라 불리는 말들은 하나같이 아름답다. 더러브렛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관상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를 추구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볼 때도 아름다운 인상을 주지 않는 말은 보자마자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아름다운 말인가. 앞서 서술한 것처럼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는 말이다. 몸의 각부의 특징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 목을 들고 싶다. 목이 아름다워야 한다.

매끈하게 뻗은 긴 목이 이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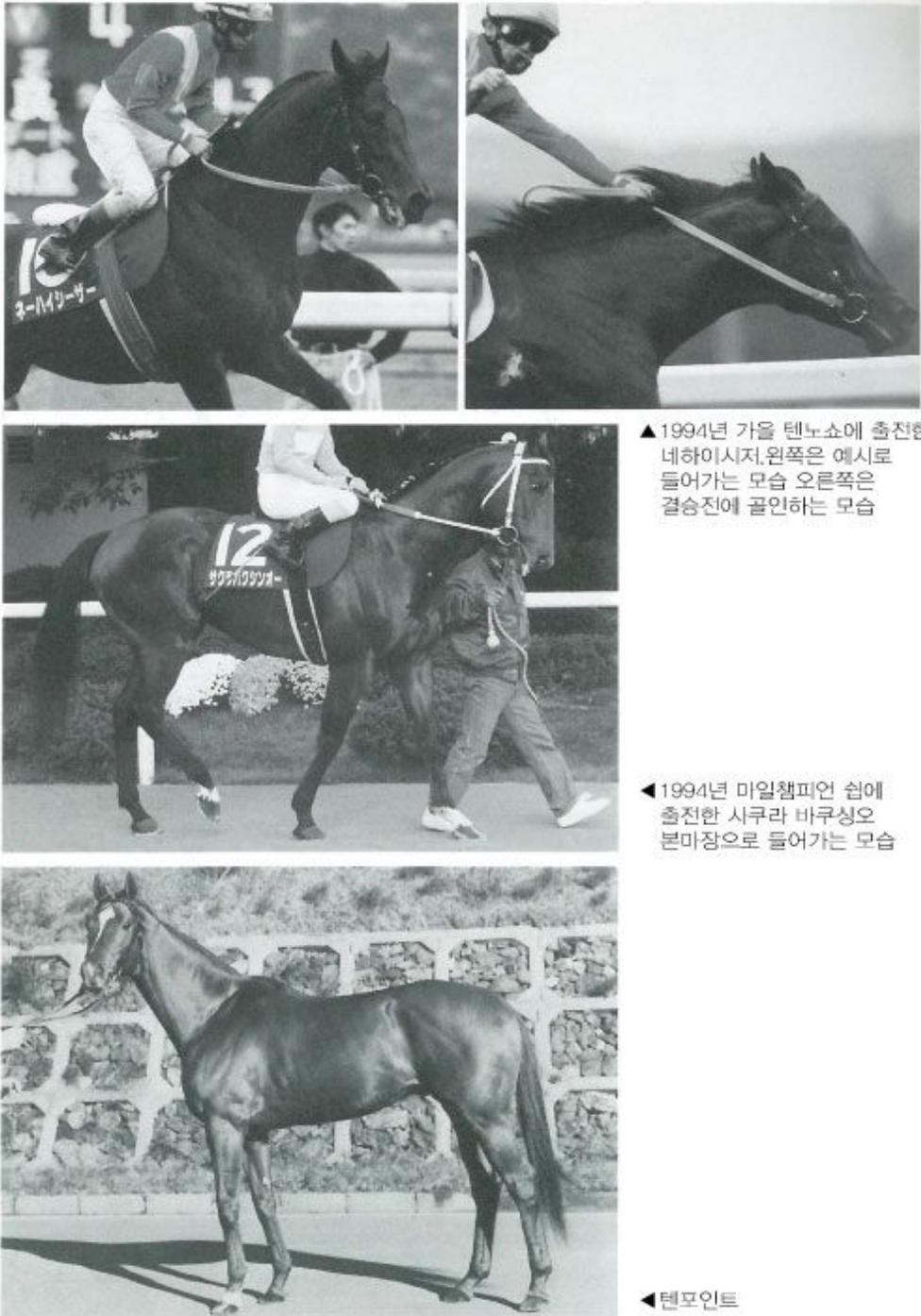
아름다운 목은 길어야 한다. 목이 짧은 말은 아름답지 않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목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진 1-4의 네하이시저<sup>11)</sup>의 모습을 살펴보자. 예시장에서는 무척 유연했던 목이 결승을 통과할 때는 이토록 다부지다. 목이 힘의 근원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숨을 꼭 참고 전력질주하고 있을 때 강한 말은 목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결승선을 향해 돌진한다. 허리가 밀어낸 힘을 목이 끌어 당겨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목을 진자처럼 활용하여 뒷다리의 도약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목이 짧은 말은 절대 잘 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단거리의 제왕인 사쿠라바쿠신오<sup>12)</sup>의 목을 보면 그다지 길지 않다. 이 또한 균형의 문제로 앞서 서술한 것처럼 목만으로 전부를 평가하면 안 된다. 사쿠라바쿠신오처럼 비교적 짧은 몸통에 어깨와 허리가 매우 발달된 말은 전형적인 단거리마의 체형에 딱 들어맞는다. 실제로 1200m 경주에서는 천하무적이었으나 1400m를 넘자 우승을 하지 못했다.

11) 1990년생. 일본 경주마 종모마. 1994년 텐노쇼(가을) 우승. 일본 최고기록 2번 기록. 통산성적 23전8승

12) 1989년생. 일본 경주마 종모마. 1993년 1994년 스프린터 스테이크스 연패. 1994년 JRA배 최우수단거리마. 통산성적 21전11승

경마관계자가 국내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볼 때 단거리마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속도를 추구하기 위해 단거리계통의 말을 찾는 경우는 있지만, 처음부터 단거리마를 원하지는 않는다. 마주의 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더비 체패이다.



▲1994년 가을 텐노쇼에 출전한 네하이시지.왼쪽은 예시로 들어가는 모습 오른쪽은 결승전에 골인하는 모습

◀1994년 마일챔피언 씬에 출전한 사쿠라 바쿠싱오 본마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텐포인트

[사진 1-4]

필자가 말을 볼 때는 더비 우승마라는 기대감이 늘 머릿속에 있다. 4세마 클래식 경주만 보아도 슷말은 사츠키쇼(皇月賞)<sup>13</sup>의 2000m 가 가장 짧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목이 짧으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긴 것이 좋다고 확신할 수 있다.

#### 유연한 목이 강력한 주행을 실현한다

하지만 그저 길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연함이다. 유연해야 뒷다리의 힘을 증폭시키는 진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있어야 한다.

말의 유연성과 관련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목의 각도이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어깨 각도와 관련이 있다. 어깨가 서 있는 말은 아무래도 목을 뺀 각도가 높아진다. 한편 어깨가 누워 있는 말은 목의 각도도 비교적 낮아, 목을 완만하게 뺀게 된다. 어깨 위에 갖다 붙인 것 같은 높은 목보다 나무줄기에서 뺀 가지와 같은 낮은 목이 당연히 유연하게 보일 것이다.

목을 포함한 몸의 움직임도 유연함을 좌우한다. 패독 등에서 말을 보아도 걸음 걸이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는 목은 유연하게 보인다. 아니면 목이 유연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부드럽게 보이는데도 모른다.

필자가 지금까지 보아온 말 중에서 가장 유연한 말은 바로 텐포인트<sup>14</sup>이다. 간사이(關西)에서 도쿄(東京)로 온 말이었는데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연한 말로, 목이 네스호에 살고 있다는 공룡 네시를 연상시켰다. 호수에서 목만 내놓은 네시의 그림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런 인상을 주는 유연한 목이었다.

#### 얼굴은 작은 편이 좋다

다음으로 목 위에 있는 얼굴을 살펴보겠다. 얼굴을 볼 때도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으로 굵은 목에는 다소 큰 얼굴이, 가는 목에는 다소 작은 얼

13) 나카야마(中山) 경마장 잔디코스에서 일본중앙경마회(JRA)가 개최하는 중앙경마의 대상(G1)경주

14) 1973~1978. 토쇼보이, 그린그라스와 함께 TTG로 불림. 클래식에서는 우승하지 못했지만 5세때 덴노쇼(봄)와 제22회 아리마 기념 경주에서 우승. 통산성적 18전11승

굴이 자연스럽다. 이런 균형을 고려해도 얼굴이 크다고 느낄 때에는 역시 잠깐 보고 제외시킨다. 얼굴이 커 보이면 속도감이 없고 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

말상이라는 단어가 긴 얼굴의 대명사인 것처럼 말의 얼굴은 길다. 작은 얼굴이 좋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너무 짧거나 작으면 곤란하다. 풀을 씹기 위해서는 턱이 충분히 발달해야 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커야 한다.

얼굴이 큰 말을 예로 들자면 비와하야히데가 대표적인 것이다. 세 번째 가을을 맞은 이 말을 처음 보았을 때 솔직히 얼굴이 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큰 얼굴에 목도 두껍고 어깨와 허리가 튼실한, 전체적으로 살찐 단거리마 체형의 비와하야히데의 경우에는 크기는 크다고 생각했지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는 느끼지 못했다. 경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얼굴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성공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말은 성장하면서 체형이 크게 바뀐 말로 5세 때에는 큰 얼굴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늙름한 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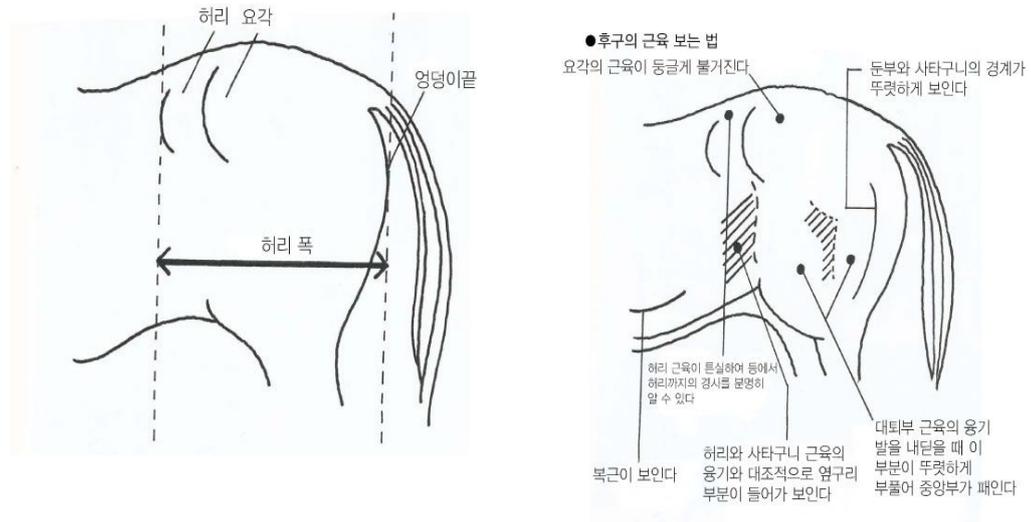
### 측면에서 소질보기 ③ 허리폭과 발달상태

경주마에게 허리는 중요하다. 경매시장에 나온 2세마를 볼 때는 물론이고 패독에서도 걸음걸이가 좋은 말이 눈에 띄면 반드시 허리를 주목한다. 이런 말들은 예외 없이 앞으로 설명할 좋은 체형을 갖추고 있다.

허리가 빈약하면 경주에 출전하기 어렵다

앞서 전체의 균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경우 허리란 정상적인 허리부분에서 엉덩이와 둔근, 사타구니 상부를 포함한 부분을 일컫는다. 그리고 허리폭이란 그림 1-6과 같이 허리에서 엉덩이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허리가 빈약하다는 것은 허리폭이 좁다는 의미이다. 허리폭은 골격에 의해 정해지므로 성장해서 근육이 붙더라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리폭이 좁은 말은 절대로 크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깨폭의 80%가 허리폭의 기준이지만 어깨와 허리가 좁은 경우에는 더 볼 필요도 없다.

●허리폭



[그림 1-6]

어린 말은 근육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가 빈약해 보일 때도 있다. 그럴 때에는 허리폭을 확인하고 근육이 붙으면 멋진 체형이 될 것을 상상한다. 만약 봄에 열리는 클래식 레이스 패독에서 그렇게 느낀 말이 있다면 가을에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기다려질 것이다. 여름 한철 지나서 기대한 대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쁠 것이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활약은 아직 멀었다고 보면 된다.

근육의 상태에서 허리의 발달상태를 본다

허리의 발달 상태가 좋다고 자주 하는데 이것은 우수하고 뛰어난 소질을 발휘할 수 있거나 훈련에 의해 능력이 잘 다듬어진 상태를 일컫는다. 이러한 발달상태를 평가할 때 허리에서 사타구니로 이어지는 근육의 상태를 본다. 이 부분은 특히 근육이 발달된 부분으로 패독에서 보아도 걸음걸이에 맞춰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발달 상태가 좋은 말은 요천골관절과 허리 사이에 뚜렷하게 경계선이 보이며, 사타구니 근육이 발달로 둔부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지한 상태에서도 허리와 사타구니 부분의 근육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상태를 허리의 발달상태가 좋다고 하며 완성도와도 관련이 있다. 살이 찌면 근육 주위에도 지방이 붙기 때

문에 근육이 뚜렷하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인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말은 최고의 마무리 상태라고 해도 근육의 완성도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1976년도 대표마르 뽑힌 토쇼보이(5세)



▲1992년 더비 패독을 도는 미호노 부르봉

[사진1-5]

사진 1-5의 토쇼보이를 살펴보자. 유연하면서도 적절하게 잘 발달한 강인한 근육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더러브렛의 근육이다. 그 아래 사진은

미호노부르봉<sup>15)</sup>이 더비 때 패독을 도는 모습이다. 4세마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허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 앞에서 보아도 부피감이 느껴져 마치 철도에 놓인 전차처럼 보인다. 근육이 이 정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속도에서 다른 말이 따라잡을 수 없는 압도적인 경마 전개가 가능했을 것이다. 근육의 발달상태는 소질뿐만 아니라 체형과 체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러한 체형은 단거리마와 더비의 강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힘은 있지만 더러브렛다운 유연함이 부족해서 거리에는 한계가 있다.

#### 엉덩이 각도에서 기울기를 본다

엉덩이 각도는 요골이 솟은 부분에서 꼬리까지의 기울기, 즉 선추의 경사상태를 말한다. 모든 말은 이 부분이 쳐져 있지만 잘 보면 그 형태는 다양한데, 엉덩이 각도가 누운 쪽이 바람직한 체형이다. 이는 선추의 경사가 보다 크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꼬리의 위치가 비교적 낮아진다. 반대로 각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는 이른바 소 엉덩이 같은 형태인데 엉덩이 각도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솟은 것처럼 보이는 허리는 최악이다.

그러면 왜 엉덩이 각도가 누워야 능력이 뛰어날까. 이것은 필자의 추측인데, 선골이 쳐져 있는 편이 달릴 때 뒷다리를 앞으로 내딛는 동작에서 보다 깊게 내딛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날렵한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승부수를 가지고 뒷심이 강한 질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말 중에 뒷심이 가장 뛰어난 말은 미스터시비<sup>16)</sup>였다. 이 말의 엉덩이 각도는 누워 있다. 한편 미스터시비에 이어 그 다음해 3관마가 된 심보리루돌프<sup>17)</sup>와 3관마끼리 펼쳐진 꿈의 대결에서는 미스터시비의 완승이었다. 심보리루돌프의 허리는 완만하게 내려가서 미스터시비 만큼 누워있지 않다. 허리뿐만 아니라 심보리루돌프의 체형은 전체적으로 유연하다. 목에서 어깨로 흐르는 선과 등에서 허리로 이어지는 선이 부드럽다. 유연성은 심보리루돌프가 좋을 것이다.

15) 1989년생. 일본 경주마 종모마. 1992년 제 55회 사츠키쇼, 제 59회 일본 더비에서 우승한 2관마. 통산성적 8전7승

16) 1980~2000. 1983년 일본 중앙경마 역사상 세 번째 모마 클래식 3관마. 통산성적 15전8승

17) 1981~2011. 일본 경주마 종모마. 일본 경마 역사상 네 번째 클래식 3관마. 통산성적 16전 13승

그렇기 때문에 속도(처음부터 끝까지 평균적으로 빨리 달리는 능력)에서는 심보리루돌프가 나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정적인 엉덩이 각도면만 보면 역시 미스터시비가 낫다고 본다.



▲미스터시비(은퇴후)



▲심보리루돌프(은퇴후)



▲니혼피로우이나(은퇴후)

[사진 1-6]

심보리루돌프처럼 속도를 갖춘 명마의 예로 토쇼보이<sup>18)</sup>를 들 수 있다. 그림 1-5를 다시 한 번 봐 보자. 역시 엉덩이 각도는 비교적 완만하다. 미스터시비의 부마이지만 이 점은 닮지 않았다. 그리고 속도로 밀어붙였던 미호노부르봉<sup>19)</sup>의 엉덩이 각도도 역시 완만하다. 원래 단거리는 속도를 낼 수 없으면 경쟁을 할 수 없다. 그다지 지구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모든 말이 처음부터 달려 나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한 뒷심이 장점이었던 니혼피로우이나<sup>20)</sup>의 엉덩이 각도를 보면 역시 누워 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물론 엉덩이 각도가 완만한 명마는

18) 1973~1992. 70년대 중반 텐포인트, 그린그라스와 함께 TTG시대를 이끔. 천마라고 불림. 사쓰키쇼, 아리마기념, 다카라즈카기념 등에서 우승

19) 1989년생. 일본 경주마 종모마. 1992년 제 55회 사Tm키쇼, 제 59회 일본 더비에서 우승한 2관마. 통산 성적 8전 7승

20) 1980~2005. 일본 경주마 종모마. 야스다 기념 우승 등 중앙 경마 대상 경주 10승. 통산성적 24전 15승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각도면 문제없다. 그러나 필자는 미스터시비와 같은 엉덩이 각도를 좋아한다. 보다 날렵한 엉덩이 각도에 끌린다.

뼈와 근육이 어우러져 힘이 넘치는 질주를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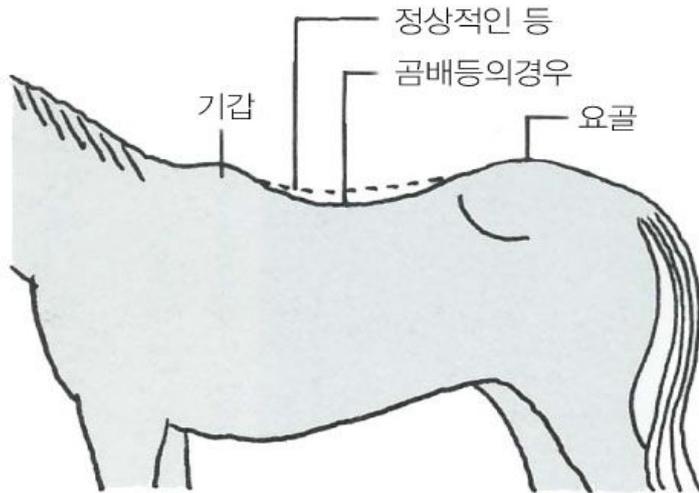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뼈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근육이다. 뼈를 움직이게 하는 속도와 힘은 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근육은 뼈 주위에 붙은 것으로 뼈의 형태에 따라 근육발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허리가 빈약하면 명마가 될 수 없다. 뼈의 형태는 근육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한다. 뼈의 길이에 따라 보폭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뼈의 각도에 따라 관절이 벌어지는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것도 보폭을 좌우한다. 허리의 각도와 관계도 여기서 기인한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리고 뼈의 형태와 각도에 따라 달릴 때에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이러한 충격의 완화 정도는 튼튼한 뼈와 함께 말이 격렬한 경주에서 질주를 얼마나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다치지 않는 말이 명마라는 말은 이런 이유에서 나온 말이다.

#### 측면 소질보기 ④ 완만한 유선형의 등

곰배등은 달리지 못한다

그림 1-3의 골격도를 보면 등뼈라는 뼈는 없다. 등뼈란 척추 전체의 총칭으로 경추에서 미추까지, 다시 말해 목에서 꼬리 중간쯤까지가 등이다. 다만 경마관계자들은 목과 허리를 제외하고 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까지를 넓은 의미에서의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1-7]

등의 윤곽은 일반적으로 완만한 굴곡을 이루며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둔부의 윤곽까지 유선형을 이룬다. 그러나 가끔 이 형태에서 벗어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소 엉덩이 같은 말의 등은 너무 평평해서 둔부로 이어지는 선도 자연스러운 유선형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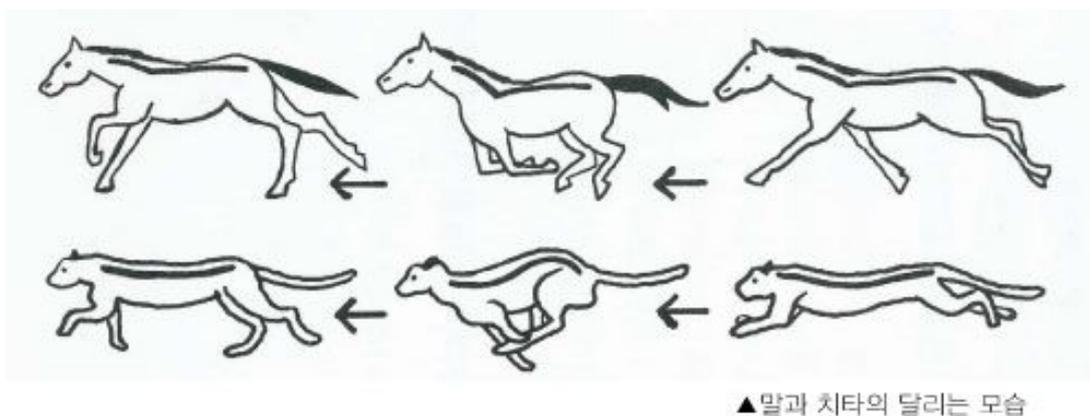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갑 뒤부터 요골까지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이 선이 아래로 쳐진 말이 있다. 그렇게 되면 허리에서 요골로 이어지는 경사가 급해져서 등의 중심부가 쳐져 보이므로 경마관계자는 이런 등을 곰배등이라 부른다. 당연히 등이 쳐진 말은 잘 달리지 못한다.

#### 등이 부드러운 말

한편 그림 1-2의 마체의 명칭에서 말하는 등이란 기갑 뒤에서 허리 바로 앞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다. 여기는 안장을 엮는 부분이며 기수가 앉는 부분이다. 경마관계자가 기수에게 말이 어떠냐고 자주 묻는데 그것은 기승감이 어떤가를 묻는 것이다. 그러면 기수는 매우 부드럽거나 등이 좋다고 대답한다. 잘 달리는 말은 모두 등이 좋다고 대답할 것이다. 즉 말을 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것은 패독에서 걷고 있는 말을 관찰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능력이 뛰어나고 컨디션도 좋은 말의 등은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평행으로 이동한다.

기수 오카베 유키오(岡部幸雄) 씨는 그의 저서에서 심보리루돌프의 등의 감촉에 대해 최고급 차를 탄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싼 차가 출렁거리며 달리는데 비해 고급차는 미끄러지듯 달린다. 그것은 단순히 좌석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능의 차이이다. 말도 마찬가지이다. 흔들림 없는 등이란 걸음걸이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걷는 것을 의미하며, 매끄러운 걸음걸이는 마체 전체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등이 쿠션 역할을 해서 작은 진동을 흡수한다. 쿠션이라면 무엇보다 구절이 유연한 정도를 말하며 등 자체의 유연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림 1-8]

여기서 말이 달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말은 치타처럼 등뼈를 굽혔다 펴지 않고 쪽 편 채로 달린다. 그 때문에 안정된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릴 때도 등은 쪽 펴져 있지만 그래도 뒷다리를 앞으로 내딛을 때에는 미묘하게 등을 굽히고 있다. 이 때 등이 부드러운 말은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뒷다리를 내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만큼 보폭이 넓어져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것도 등이 좋은 말이 잘 달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 측면에서 소질보기 ⑤ 앞다리와 뒷다리의 역할

말은 가운데 발가락 하나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보다 빨리 달리기 위해 말이 진화해 온 결과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더러브렛을 만들어낸 역사는 그 전에 말 스스로가 빨리 달리기 위해 진화해온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보면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 앞다리와 뒷다리의 구조와 역할

그림 1-9는 말의 다리뼈와 인간의 뼈를 대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의 네 다리는 모두 이동을 위해 움직이지만 앞다리와 뒷다리는 다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구조의 차이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뒷다리는 몸을 앞으로 떠밀어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앞다리는 체중을 지탱하면서 뒷다리가 차낸 추진력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땀틀을 뛰어 넘을 때의 동작을 상상해 보자. 다리가 차낸 추진력을 땀틀을 짚는 팔로 받아 체중을 지탱하면서 그 추진력과 함께 몸을 앞으로 보낸다. 이 요령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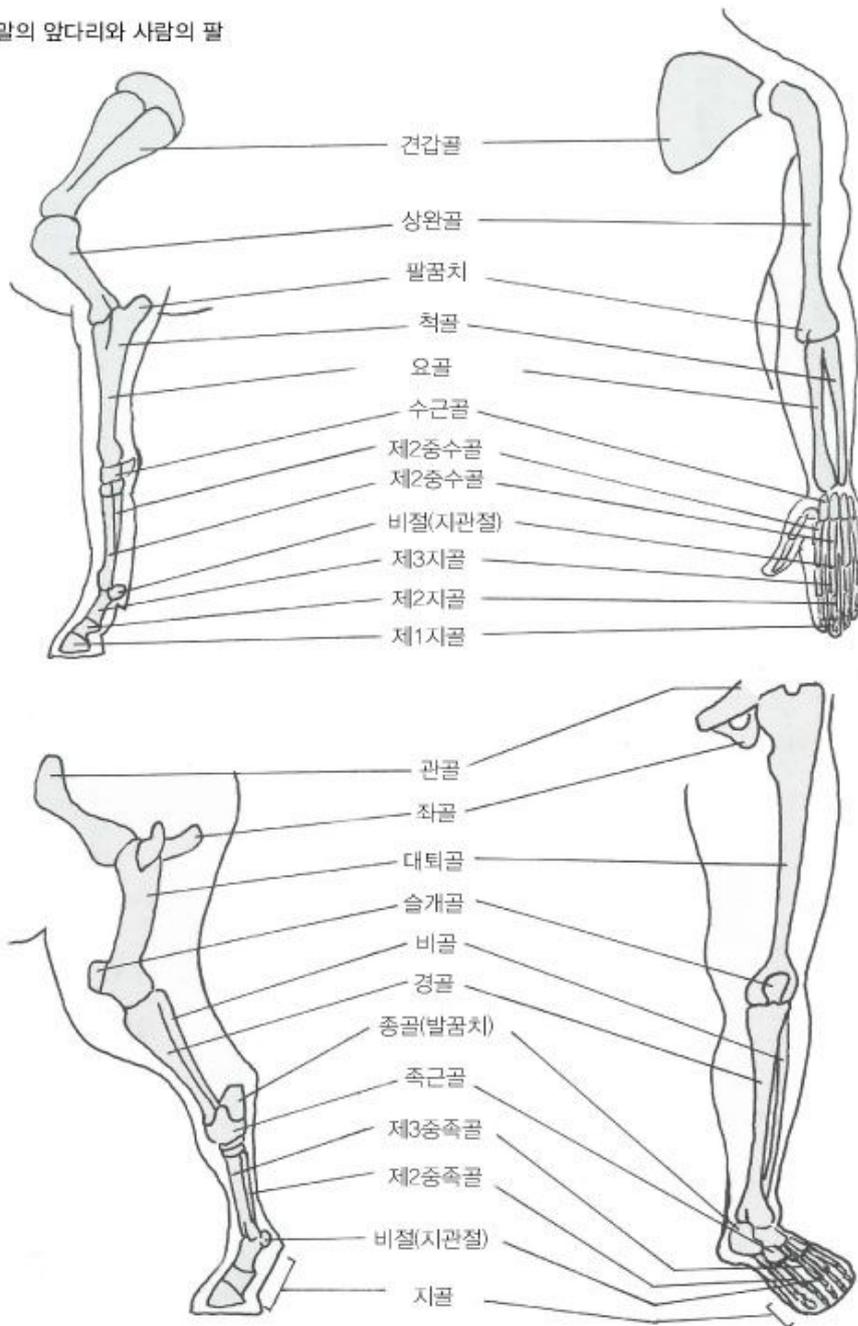
### 서 있는 모습에서 앞다리와 뒷다리의 균형을 확인한다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볼 경우, 가장 중요한 다리를 확인할 때는 서 있는 자세에 주의한다. 경주마가 서 있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일정하다. 예를 들면 사진 1-6처럼 옆으로 세운 후 머리를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앞다리는 왼쪽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뒷다리는 왼쪽다리를 조금 뒤로 뺀 자세이다. 이 자세에서 네 개의 다리 길이와 굴곡, 비절과 구절의 각도, 발굽의 모양 등, 각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목과 어깨와 허리의 균형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마체 각 부분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면 말의 중심은 거의 한가운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말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똑바로 서 있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앞다리를 조금 뒤로 뺀 모습으로 서 있는 말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심이 한가운데서 조금 뒤쪽으로 쏠리게 된다. 반대로 앞쪽으로 중심이 쏠

려서 조금 앞으로 기운 자세로 서 있는 말도 있다. 이런 말은 다리의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은 말이다. 그러면 당연히 잘 달리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부상이다.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네 다리 중에 어느 한 다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평소에도 유리다리라고 불리는 가는 다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진다면 부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의 앞다리와 사람의 팔



[그림 1-9]

## 뒷다리의 비절 각도에 주의한다

다음으로 뒷다리의 비절 각도를 보자. 이 비절은 사람으로 치면 뒤꿈치에 해당한다. 말의 뒷다리는 고관절에서 무릎으로 이어지고 무릎에서 비절로 크게 굴곡을 이루며 이어져 있기 때문에 뒷다리는 많이 휘어 보인다. 이 선이 휘지 않고 쪽 뻗어 있으면 비절 각도가 얇아진다. 이런 비절을 직비절이라고 하는데 직비절의 말은 탄력성이 없어서 부상을 입기 쉽고 잘 달리지도 못한다.

더욱이 비절에서 구절까지는 거의 수직으로 중족골이 뻗어 있는데 간혹 이것이 앞으로 나간 말이 있다. 그러면 비절 각도가 깊어져서 부등호 기호처럼 꺾어진 느낌이 든다. 이런 비절을 곡비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지 않다. 뒷다리의 발굽이 앞으로 나간 만큼 보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서 있을 때는 앞쪽의 뒷다리를 조금 빼고 서 있기 때문에 비절에서 구절로 이어지는 선은 조금 뒤로 빠진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바깥으로 나간 것은 부자연스럽다. 비절에서 구절로 이어지는 선이 뒤로 빠지면 밖으로 힘이 빠져나가 달릴 때 균형이 깨진다.

명마의 뒷다리를 보면 대개 그림 1-10처럼 둔부에서 내려 그은 수직선 위에 비절과 구절이 위치하게 된다. 이런 형태가 균형이 잘 잡힌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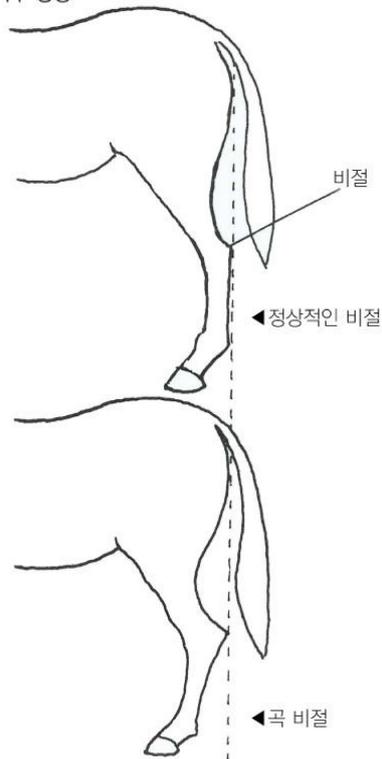
## 보우(Bow)는 굴건염에 걸리기 쉽다

앞다리는 인간으로 치면 팔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떨어져 나와 뻗어있다. 비절이 발목에 해당하는 것처럼 앞무릎 부분은 손목에 해당한다. 앞다리는 보통 거의 똑바로 뻗어 있는데 무릎관절을 중심으로 다소 굴절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진 1-7의 시호크의 사진을 보면 앞다리의 무릎에서 아래쪽이 몸 안쪽으로 휘어 있다. 사진 1-4의 텐포인트의 다리를 살펴보자. 역시 무릎에서 아래가 몸 안쪽으로 휘어 있는데 이렇게 휘는 것은 결점이 아니다. 오히려 이 모습이 튼튼하고 좋은 골격이다. 사진 1-4의 오른쪽의 1세마의 사진을 보자. 원래 말의 다리는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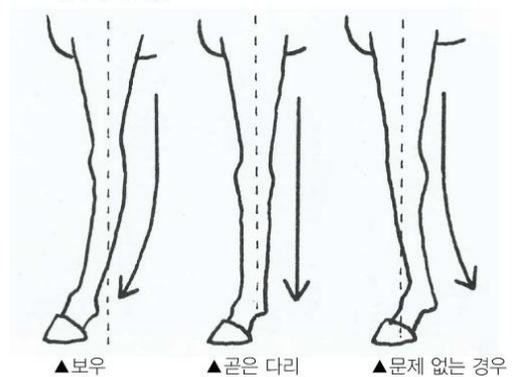
어났을 때는 이렇게 휘어 보이지만, 그 후 성장하면서 곧아지는 말이 많다. 그러나 아래 사진처럼 곧아지지 않기도 하는데 이 또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진 1-5의 토쇼보이의 앞다리에 주목해 보자. 미묘하게 앞으로 휘어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무릎을 중심으로 활처럼 안으로 휘는 다리를 보우(Bow)라고 하는데, 이렇게 휘는 것은 좋지 않다. 보우는 굴건염에 걸리기 쉽다는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굴건염이란 관부 뒤쪽 근육(굴건)이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걸리면 잘 낫지 않는 매우 치명적인 병이다. 토쇼우보이의 자마들에게는 약간 보우로 보이는 말이 많다. 이렇게 좋은 말이 왜 달리지 못하느냐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앞다리의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말도 적지 않다.

●마체의 각부 명칭



●앞다리의 휨정도



[그림1-10]

## 앞다리에 가해지는 부담

앞에서 말의 질주를 설명할 때 뿔뜰을 예로 들었는데 뿔뜰에 팔을 짚을 때는 팔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다. 뿔뜰에서는 그 힘을 양손으로 받고 있지만 말이 달릴 때는 그 힘이 앞다리 하나에만 쏠린다. 말의 앞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앞다리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훨씬 많다.



▲생후2개월된 당세마. 앞다리가 조금 안쪽으로 휘어있다



▲시호크 앞다리가 조금 안쪽으로 휘어 있다



▲위의말의 1개월반후, 휘어졌던 앞다리가 펴져있다

[사진 1-11]

잘 단련되어 늙은 체형을 한 미호노부르봉도 앞다리의 굵기는 다른 말과 별 차이가 없다. 관부의 둘레는 겨우 21~22cm일 정도로 가늘다. 그러한 앞다리에 튼튼한 허리가 차낸 강력한 추진력이 가해지는 것이다. 역시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다. 깃카쇼(菊花賞) 21)경주 후에 앞다리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어 깨 파행이 생겼는데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복귀할 수 없었다.

21) 일본중앙경마회(JRA)가 교토(京都) 경마장의 잔디코스에서 개최하는 중앙경마의 대상(G1)경주

미호노부르봉과 달리 가볍게 달리고 있던 비와하야히데도 앞다리를 다쳐서 은퇴했다. 라이스샤워<sup>22)</sup>에게 일어난 비운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상 최강마라고 불렸던 심보리루돌프도 은퇴의 계기는 앞다리의 부상이었다. 제아무리 명마라도 부상과 무관할 수는 없다. 더러브렛과 비교하면 아랍말<sup>23)</sup>은 튼튼하고 부상도 적다. 그러나 속도는 한 세대 뒤쳐져 있다. 우리 다리에 대한 불안은 오로지 속도만을 추구해온 더러브렛이 가지는 아픔답지만 슬픈 숙명인지 모른다.

## 측면에서 소질보기 ⑥ 얇은 피부

아름다운 피부도 더러브렛의 미(美)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름다운 피부란 피부가 얇고 털의 윤기가 좋다는 것으로, 말의 체질뿐만 아니라 목장과 마사에서 실시하는 관리방법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프로는 이 점에 관해서는 매우 까다롭다.

### 얇은 피부는 경주 능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피부를 중시하는 이유는 피부가 좋은 말은 땀을 잘 흘리기 때문이다. 한혈마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나라 무제가 서역에서 얻은 준마는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하루에 천 리를 달렸다는 중국 고사가 있다. 이 고사에 나오는 준마를 일컫는 말로, 여기서 땀에 주목하고 있는 점은 실로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말은 전신에 땀샘이 분포하고 있어서 다른 동물과 비교해도 매우 땀을 잘 흘리지만 주로 달릴 때 땀을 흘린다. 경마장에 가면 패독에서는 태연한 얼굴로 걷고 있던 말이 경주를 끝내고 들어 갈 때는 전신이 땀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추운 겨울철에는 경주를 할 때 흘린 땀이 김이 되어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기도 한다. 이처럼 격렬한 질주로 상승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말은 땀을 많이 흘린다. 이렇게 능숙하게 체온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22) 1989~1995. 일본 경주마 종모마. 1992년 깃카쇼 우승. 1993년, 1995년 텐노쇼 우승.  
1995년 출주한 다카라즈카 기념 경주에서 경주 도중 골절로 인해 안락사

23) 현존하는 개량종 말 가운데 최초로 확립된 품종.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의 채래마와 교배하여 더러브렛을 만들어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부가 좋은 말은 잘 달린다. 반대로 피부가 두껍고 털의 윤기가 나쁜 말은 땀을 잘 흘리지 못해서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부가 좋은 말은 더워지면 적당하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고 필요 이상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여름을 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피부가 두껍고 털의 윤기가 나쁜 말은 땀을 잘 흘리지 못한다. 더워져도 좀처럼 땀을 흘리지 않거나, 갑자기 땀이 나게 되면 한없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여름을 타기 쉽고, 여름을 타게 되면 전혀 땀을 흘리지 않게 된다. 이처럼 몸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여름철의 부진은 가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아기피부 같은 촉촉한 피부는 겨울털도 다르다

윤기 있고 피부 아래 근육이 뚜렷하게 볼거져 보이는 얇은 피부가 이상적이다. 이런 경주마의 이상적인 피부를 일본에서는 기름종이를 붙인 것 같다는 등의 표현을 한다. 필자라면 촉촉한 아기피부 같다고 표현할 것이다. 아기피부는 얇고 아름답다. 촉촉한 피부는 물을 잘 튀겨내기 때문에 구슬 같은 땀을 흘린다. 땀이 끝없이 줄줄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피부가 이상적이므로 말의 피부를 볼 때는 아기피부를 상상하기 바란다. 실제로 여름철 패독에 나온 말을 보면, 피부가 고운 말은 몸 표면에 구슬 같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매우 더워지면 땀의 양도 많아지지만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모습으로 사타구니 밑이나 배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말은 대개 피부가 좋은 말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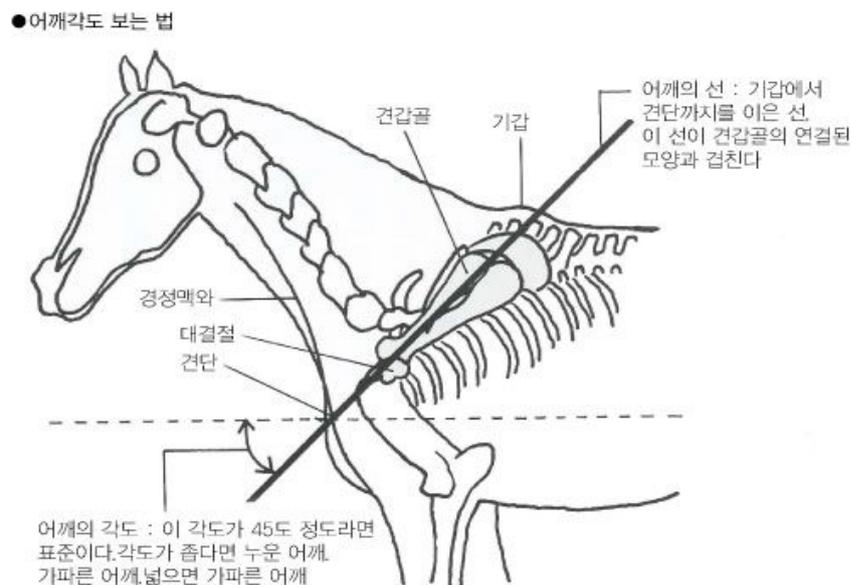
2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추워지면 겨울털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말의 윤기는 나빠진다. 특히 어린 2세마는 추위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겨울털이 많이 난다. 그러나 피부가 좋은 말은 겨울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얇은 피부를 가진 말은 겨울털도 가늘고 부드럽기 때문이다. 마치 양고라 스웨터를 입은 것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털이 전신을 감싸고 있다. 이런 겨울털이 빠지면 멋지고 얇은 피부가 드러난다.

## 측면에서 적성보기 ① 어깨 각도와 거리적성

흔히 비교적 몸통이 짧은 정사각형 체형은 단거리마이고, 몸통이 긴 직사각형 체형은 장거리마라고 한다. 또는 단거리마는 앞가슴이 발달해 있고 허리도 크며 근육이 발달한 늠름한 체형인데 비해 장거리마는 날씬하고 유연한 체형이라고 한다. 말의 체형에서 적성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체형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거리적성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어깨의 각도라고 본다.

### 가파른 어깨와 누운 어깨

어깨란 견갑골에서 대결절(어깨의 관절) 부분을 일컫는다. 따라서 어깨 각도란 견갑골의 각도를 말한다. 그림 1-11과 같이 말의 견갑골은 보통 45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말 중에는 경사 각도가 큰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견갑골이 더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깨 경사가 급한 말을 경마관계자들은 어깨가 가파르다고 한다. 어깨가 누웠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로 견갑골 경사가 45도 보다 작은 비교적 완만한 경우이다. 또는 보통 정도의 경사여도 어깨가 가파른 말과 비교해서 어깨가 누워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11]

그리고 이 견갑골의 경사 정도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지 않아도 외관상으로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림1-11과 같이 기갑에서 견단까지 이은 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선이 45도 정도라면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은 어깨 각도가 표준범위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이 각도를 벗어난 말은 눈에 띄게 된다.

#### 주행의 축은 어깨에 있다

어깨 각도를 중시하는 이유는 경주마의 주행의 축은 어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갑을 중심으로 한 어깨와 앞다리의 움직임이 주행 리듬의 근원이며 뒷다리는 이 리듬을 이용하여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추진력을 만들어 낸다. 목도 이 리듬에 따라 진자와 같이 움직여 뒷다리의 추진력을 증폭시킨다. 이런 구조로 말은 달리는 것이다.

이 구조 가운데 견갑골의 각도가 가파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어깨관절에 있는 상완골의 각도가 넓어져 그만큼 앞다리가 앞으로 벌어지는 각도가 좁아지게 된다. 이 의미는 보폭이 좁아져 어깨에서 시작되는 걸음걸이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깨가 표준보다 누워 있으면 그만큼 어깨가 앞으로 벌어지는 폭이 커지므로 보폭은 넓어지고 걸음걸이가 비교적 느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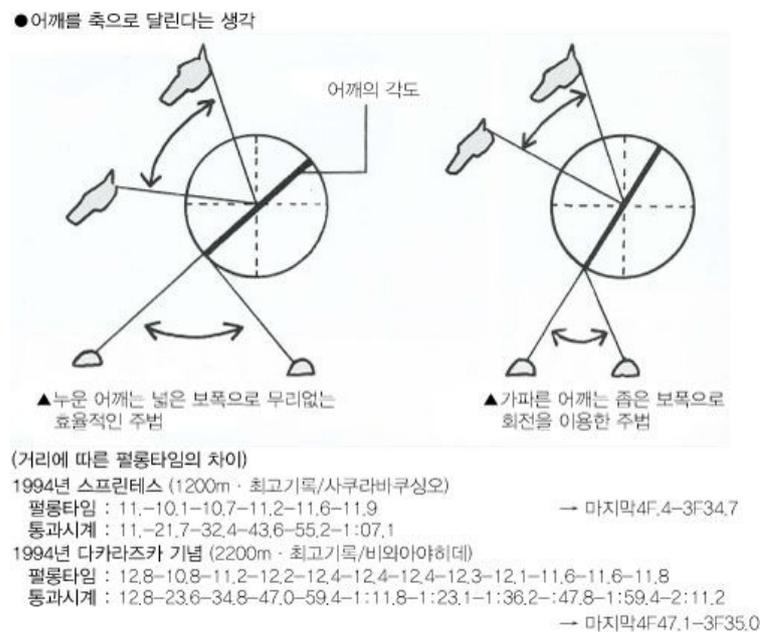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깨 각도가 단순히 보폭을 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앞다리가 주행의 축을 이루기 때문에 어깨 각도에 따라 달리는 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 단거리 적성과 장거리 적성

어깨가 가파른 말은 보폭보다 다리의 빠른 움직임으로 속도를 내는 회전 주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저속기어와 마찬가지로 출발점에서 효율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다. 그림 1-12 아래에 있는 스프린터즈 S의 기록과 다카라wm카 기념(宝塚記念) 24)경주의 (모두 최고 기록) 기록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처음 1펄롱에서 1.2초, 2펄롱에서 1.9초의 차이가 난다. 이처럼 처음부터 최고 속도에 가까운 가속을 하는 데는 빠른 움직임과 강한 힘을 겸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물론 어깨가 누워서 보폭이 큰 말이라도 출발할 때는 보폭을 좁게 하여 능숙하게 가속할 수 있도록 애 쓰지만 빠른 움직임을 장기로 하는 말을

24) 일본중앙경마회(JRA)가 한신(阪神)경마장 잔디 2200m 코스에서 개최하는 중앙 경마의 대상경주. 한신경마장이 다카라즈카시에 있어서 다카라즈카 기념경주라고 불린다

따를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출발선에서 뒤쳐지게 된다. 단거리 경주의 경우 늦게 발주는 치명적이다. 지연을 만회할 틈도 없이 결승선에 도착해 버리기 때문에 어깨가 누운 말은 단거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 유명한 메지로마크인<sup>25)</sup>도 깃카쇼(菊花賞) 경주에서 우승할 때까지는 거리 때문에 좀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애를 먹었다



[그림1-12]

그러나 회전 주법에는 체력의 한계가 있다. 저속 기어에서 계속 속도를 올리면 엔진 과열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거리가 길어지면 도중에 지쳐 버릴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이 단거리마의 거리의 벽이다. 이렇게 되면 어깨가 누운 말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비교적 움직임이 느려도 보폭의 크기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무리 없이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 장거리마의 주행은 모두 부드럽고 여유롭다.

따라서 어깨가 가파른 말은 단거리에 적합하고 어깨가 누운 말은 장거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적인 어깨를 한 말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5) 1987년산. 일본 경주마 종모마. 깃카쇼, 텐노쇼, 다카라즈카 기념 등에서 우승. 통산성적 21전 12승

## 혈통의 역사가 선택한 체형

그러나 처음 설명한 것처럼 단거리마와 장거리마의 특징은 어깨 각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인 단거리마의 체형은 목이 두껍고 짧으며 몸통도 짧막하며, 가슴과 허리 근육이 잘 발달한 크고 늠름하고 단단하다. 기질적인 면에서도 투지가 강하다. 한편 전형적인 장거리마의 경우는 비교적 날씬하고 길며 몸통도 길고, 어깨와 허리에선 필요 이상의 근육이 붙지 않아 날씬하고 유연한 체형을 하고 있다. 기질적으로 순하고 말을 잘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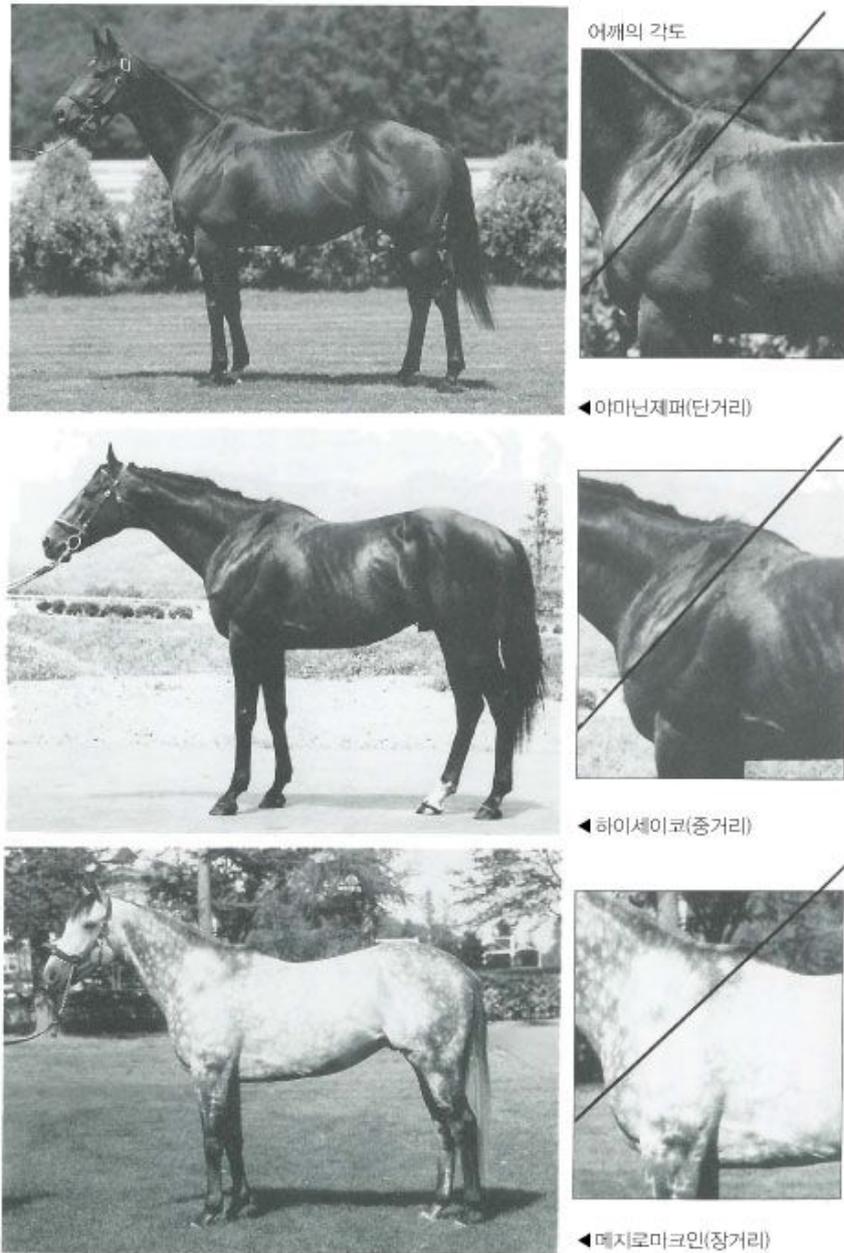
이러한 조건들은 각각의 주법과 적성거리에 딱 맞아떨어진다. 빠른 회전 주법을 위해서는 목과 몸통이 짧은 것이 어울리고, 저속기어를 풀 회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이 필요하다. 기질적으로 태평한 말은 경주를 제대로 끝낼 수 없다. 발주 직후부터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해서 결승선까지 전력 질주하는 것이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이다. 한편 장거리 경주에서는 큰 보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달리기 위해서 몸통이 긴 쪽이 유리하며, 무리 없는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유연하고 절제된 근육이 적합하다. 그리고 장거리에서는 기수와 의 호흡이 중요하다. 도중에 긴장을 풀어가면서 달리지 않으면 끝까지 달릴 수 없다. 말을 어떤 페이스로 어디로 몰고, 어느 지점에서 돌진할 것인가 하는 경주의 전개 전략이 필요한 이상, 기수의 판단에 순응하는 순한 말이어야 한다.

단거리마와 장거리마의 이러한 요소들은 어깨 각도에 의해 전부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깨가 서 있어도 몸통이 길고 성격이 느긋한 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단거리에서 이길 수 없다. 게다가 거리가 길어지면 보폭이 좁은 만큼 불리하다. 이런 말이 이길 수 있는 경주는 없다. 즉 능력이 낮은 말이라는 것이다. 또한 능력이 없는 말은 종마가 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혈통의 역사 속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다.

## 미호노부르봉의 도전

미호노부르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세 때부터 전승을 올리면서 사쓰키쇼(皇月賞)에서 우승한 이 말은 더비에서도 당연히 인기가 가장 좋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마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미호노부르봉의 승리를 의심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즉 거리의 벽 때문이었다.



[사진 1-8]

미호노부루봉은 전형적인 단거리마 체형의 말로, 능력이 뛰어나 거리의 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사쓰키쇼(皐月賞) 2000m 경주가 한계라고 모두

가 생각하고 있다. 가장 인기가 있던 이 말의 더비 제패는 일반 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르지만 경마관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그것은 더러브렛의 한계에 대한 격렬한 도전이었다. 그러면 깃카쇼(菊花賞) 3000m 경주는 어떨까. 필자는 우승후보마로 점찍었다. 미호노부르봉의 도전에 걸어보고 싶었다. 결과는 2착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는 의견이 엇갈려서 조교사 도야마 다메오(戸山爲夫) 씨는 덴노쇼(天皇賞)<sup>26)</sup> 3200m 경주에 출전할 것을 표명했으나, 그 직후 미호노부르봉은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함께 더러브렛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 측면에서 적성보기 ② 발목의 형태와 코스 적성

발목은 구절과 발굽사이의 부분이다. 이 부분은 모든 말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다. 패독을 돌고 있는 말의 발끝을 보면 체중이 실릴 때 마다 이 부분이 더 기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3-2에 나온 다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앞다리를 내딛고 체중을 지탱할 때 구절은 크게 굴절되어 다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 때 발목 부분은 지면과 거의 평행을 이루며 넓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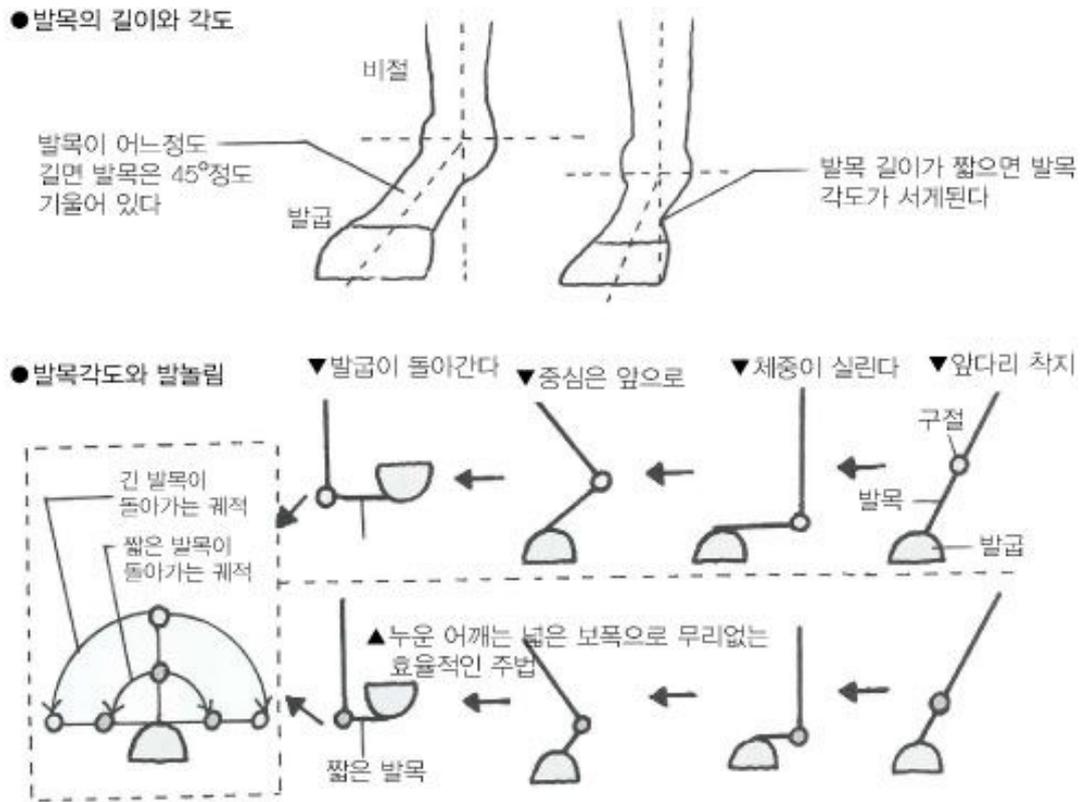
### 긴 발목과 짧은 발목

당연히 발목은 앞다리와 뒷다리에 모두 있다. 그러나 가장 강한 충격을 이겨내는 것이 앞다리인 만큼 발목은 앞다리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필자가 발목의 형태를 볼 때는 반드시 앞다리를 본다. 자세히 보면, 이 발목 부분의 기울기는 말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서 있는 발목이 있는가 하면 누워 있는 발목도 있다.

이 기울기는 발목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있으면 발목은 45도 각도로 기울어지지만 발목의 길이가 짧으면 그만큼 경사각도가 서 있는 것

<sup>26)</sup> 일본중앙경마회(JRA)가 봄과 가을 일년에 두 번 개최하는 중앙경마의 대상경주

처럼 보인다. 충격흡수 면에서 본다면 물론 발목이 긴 쪽이 좋다. 짧은 발목은 아무래도 충격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그림 1-13]

짧고 서 있는 발목은 더트코스에 맞는다

경마장 주로에도 충격흡수 장치는 있다. 더트코스는 주로의 표면에 70~80% 정도의 쿠션 즉 모래가 깔려 있어 다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잔디코스도 잔디 밑에는 모래가 깔려 있지만 더트코스의 쿠션 역할을 하는 모래만큼 완충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말의 다리가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충격이 완화되지 않아 다리가 망가져 버린다. 따라서 충격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발목이 짧은 말은 딱딱한 잔디코스에는 맞지 않는다. 부드러운 더트코스에 잘 맞는다.

발목이 짧은 말이 더트코스에 맞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발목을 굽힐 때의 반경 때문이다. 그림 1-1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긴 발목을 굽힐 때가 반경이 크다. 이에 비해 발목이 짧으면 돌리는 반경이 짧아 지므로 발목을 굽히는 동작이 작아진다. 마른 모래 위를 달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발목을 크게 돌리며 달리면 모래 속에 발이 빠져 달리기가 매우 어렵다. 발목을 많이 꺾지 말고 발을 내딛었다 빼면서 달리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항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짧고 서 있는 발목은 더트코스에 잘 맞는다. 참고로 미국 경마는 더트코스가 중심으로 발목이 짧은 말이 많다. 사진 1-19의 에이피인디는 전미 챔피언 말로, 발목이 마치 대나무처럼 곧게 뻗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잔디코스 경주가 중심이며, 특히 대상경주의 대부분은 잔디 코스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부러 더트코스에 적합한 말을 사는 일은 없다. 그리고 일본의 잔디코스를 보면 대부분이 야생 잔디 코스이다. 서양 잔디 코스는 삿포로(札幌)와 하코다테(函館)경마장 뿐이다. 그 이유는 야생잔디가 일본의 더운 여름에도 잘 맞고, 밟혀도 잘 자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생잔디와 서양잔디의 차이는 종종 지적되지만 충격흡수 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뿌리 구조의 차이이다. 서양잔디는 가는 뿌리가 촘촘하게 뻗어 있어서 1~2cm 정도의 매트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충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야생잔디의 뿌리는 매트층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서양잔디 만큼 충격흡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겨울에는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일본의 잔디코스는 특히 딱딱하다. 그 때문에 일본의 잔디코스에서 달리는 말이라면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발목이 필요하다.

#### 잔디코스 말과 더트코스 말

그러나 잔디코스과 더트코스의 적성을 발목이 길고 짧음으로만 정할 수 없다. 잔디코스 경주는 속도와 순발력이 필요하고 더트코스 경주는 힘과 속도가 필요하다. 이 내용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기본으로, 더트코스를 달리는 말은 일반적으로 힘이 있는 대형마가 많고 근육이 발달한 단거리형의 말이 적합하다. 뒷심이 없는 만큼 선행으로 달려 나가는 경주 전개도 단거리마에게 잘 맞는다. 예를 들어

야스다 기념(安田記念) 27)경주에서 2연패를 한 야마닌제퍼28)는 원래 더트코스에서 활약을 했던 말이다. 미호노부르봉도 더트코스 경주에 출전했다면 잘 달렸을 것이다.



◀에이피인디(은퇴후)  
사진1-30에 2세마  
때 사진이있다.발목의  
각도는 변함이 없다



◀ 미호노부르봉(은퇴후)  
사진1-5에 더비 패독때의  
모습이 있다

▼라이스 사워(1995년 7세대,  
다카라즈카 기념 경주중에 왼쪽  
앞다리 개방 골절로 사망)아래는  
6세때의 앞모습,그 왼쪽은 봄에  
열린 텐노쇼 때의 모습(5세)



[사진 1-9]

27) 일본중앙경마회가 나카야마(中山) 경마장 잔디 2000m 코스에서 개최되는 중앙경마의 대상 경주

28) 1988년산, 일본 경주마 종모마. 단거리에서 2000m까지 활약. 야마다 기념 경주에서 두 번 우승. 텐노쇼 (가을) 우승. 통산성적 20전 8승

반대로 장거리형마와 뒷심을 장점으로 하는 말에게는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라이스샤워와 같이 날씬한 말에게는 무리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더트 조교에서는 전혀 달리지 못했다. 수득 상금이 500만 엔일 정도로 실력이 없는 평범한 말과 같이 달려도 뒤쳐질 정도였다.

## 앞·뒤에서 보기 ① 앞다리·가슴폭·허리

지금까지가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관찰할 때 얼핏 보고 판단하는 내용이다. 이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말은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런 대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이번에는 앞모습과 뒷모습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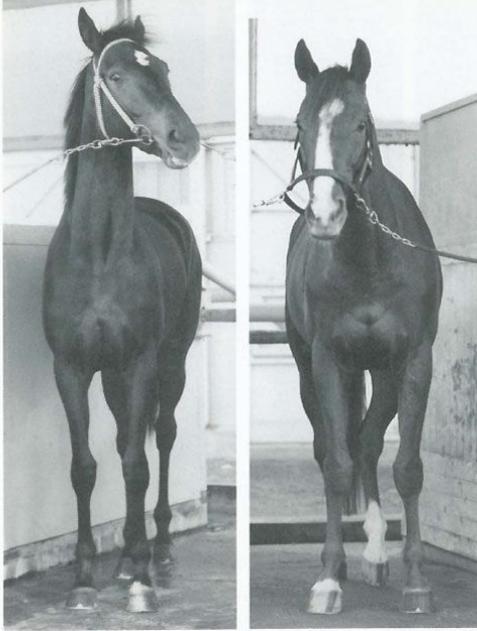
### 정면에서 앞다리를 본다

말의 정면으로 와서 앞다리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무릎(완관절)에서 아래로 뻗은 모습을 본다. 중수부 부분이 좌우 어느 쪽으로든 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무릎을 중심으로 상박과 중수부 길이를 비교하여 균형이 잘 맞는지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중수부가 너무 길면 잘 달리지 못한다. 물론 너무 짧아도 안 된다. 그리고 발굽이 똑바로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를 본다. 말 중에는 내향, 외향이라고 해서 발굽이 안쪽이나 밖으로 향하고 있는 말도 있는데 이런 말도 좋지 않다.

### 가슴폭이 크면 양다리 사이가 벌어진다

다음으로 가슴 폭을 확인한다. 말 중에는 가슴폭이 표준보다 넓은 말이 있는데, 양쪽 다리 사이가 벌어져 있어 O자 다리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런 형태는 좋지 않다. 경마관계자는 이런 말을 보고 다리 사이에 여물통이 들어 갈 것 같다고 과장되게 표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말은 잘 달리지 못한다. 가슴폭이 너무 넓으면 힘이 분산되어 합리적인 주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토메노이노리 좁은 가슴폭 ▼마이네르요스 넓은 가슴폭



▼오토메노이노리의 조교 달릴 때의 근육은 느슨하다



[사진 1-10]

#### 뒤에서 허리 형태를 확인한다

뒤에서 말의 허리를 보면 보통 요골을 중심으로 좌우로 퍼져 있다. 그 중에는 요골을 중심으로 좌우로 쳐져서 허리가 산 모양인 말이 있다. 이런 허리에서는 힘이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도 힘이 없다. 기본적인 근육발달 상태가 약하기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골격 구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패독에서 볼 수 있는 마른 말은 심한 경우에는 요골이 불거져 보이지만, 뒤에서 보았을 때 허리가 산 모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앞·뒤에서 보기 ② 발굽 형태와 주로 적성

정면에서 앞다리를 볼 때는 발굽에도 주목한다. 발굽의 형태도 앞다리의 발굽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앞다리는 주행 중에 체중을 지탱

하며, 뒷다리의 도약을 받아 앞으로 전진 할 때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로가 나쁠 때 미끄러지거나 주로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앞다리 발굽이다. 그리고 그 역할 차이에 따라 앞다리와 뒷다리의 발굽모양이 다르다. 앞다리의 발굽은 뒷다리의 발굽에 비해 폭이 넓고 크다.

#### 발굽은 튼튼해야 한다

주행을 근본적으로 지탱해 주는 발굽은 당연히 튼튼해야 한다. 튼튼한 발굽은 어느 정도 커야 한다. 유럽에서는 발굽이 클수록 튼튼하다는 설도 있다. 다만 경주를 고려하면 너무 큰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움직임이 날렵하지 않아서 발끝이 무거운 주행을 하게 된다. 또한 주로가 질퍽질퍽하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크기는 적당해야 한다.

발굽을 보고 난 후 발굽 속의 깊이를 본다. 발굽 속은 원래 패여 있지만, 깊게 패여 있는 것이 좋다. 발굽 속이 얇으면 돌이나 튀어나온 곳을 밟았을 때 발굽 속을 다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앞다리를 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발굽 속을 확인하기도 한다.

발굽 표면에 횡선이 많은 말이 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손톱 발육이 더더진다. 그래서 손톱이 조금 자라면 그 부분이 울룩불룩하게 된다. 따라서 발굽의 질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선이 많은 경우에는, 몸 상태가 종종 나빠지는 허약한 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굽의 횡선이 많은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 발굽의 형태로 나쁜 주로에 강한지 알 수 있다

흔히 작고 밥그릇을 얹어 놓은 것 같은 발굽을 가진 말은 주로가 패이거나 질퍽질퍽한 나쁜 주로에 강하고, 평평하고 큰 발굽을 가진 말은 나쁜 주로에 약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

후지마돈나<sup>29)</sup>를 예로 들어보자. 신잔<sup>30)</sup>의 자마로 500kg이나 되는 대형마로 발

29) 1976~1988. 일본 경주마 중빈마. 대상경주 3번 우승

30) 1961~1996. 1960년대에 활약한 일본 경주마 중모마. 일본 경마 역사상 두 번째이자 2차 대전 후 최초의 클래식 3관마

굽도 컸다. 이런 말은 일반적으로 나쁜 주로에 약하다. 대개 신잔의 자마는 나쁜 주로에 약한 말이 많은데, 이 말은 나쁜 주로에서도 뛰어났다. 발을 보니 역시 밥그릇을 엮어 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말은 대형마 치고는 발놀림이 좋아 재빠르게 움직이는 말이었다. 나쁜 주로에서 강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발굽뿐만이 아니다. 진흙탕 길에서 보폭을 넓게 해서 뛰면 미끄러지기 마련으로 종종걸음으로 발끝을 작게 꺾어가며 달리는 것이 상책이다. 작은 보폭으로 달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마체도 작은 편이 좋다. 발목도 긴 것보다 짧은 쪽이 작게 꺾이는 만큼 미끄러지지 않는다.

필자는 메지로마크인의 발굽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발목이 긴데도 발굽은 밥그릇을 엮어 놓은 형태이다. 뛰는 보폭은 컸지만 이 발굽으로 지면을 움켜쥐듯 달려서인지 나쁜 주로에 강했다.



[사진 1-11]

### 앞 · 뒤에서 보기 ③ 턱 · 꼬리 · 얼굴

턱과 꼬리는 손으로 쓰다듬어서 확인한다

말의 얼굴은 좁고 긴데, 옆에서 보면 턱이 튀어나와 있다. 여물을 잘 씹기 위해서는 턱의 발달이 중요하다. 턱(마체의 명칭에서는 볼 부분)밑에서 목까지 쓰다듬어 본다. 아래턱의 뼈가 튀어나와 있는 말은 목과의 경계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잘록하지 않은 말은 잘록한 말에 비해 여물을 잘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난 후, 목에서 어깨 쪽으로 쓰다듬어서 피부의 상태와 털의 윤기가 눈으로 보았을 때의 인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말 털의 결은 멩크 모피처럼 표면의 털은 조금 굵고 광택이 있지만, 그 속에는 가는 솜털이 빈틈없이 나있다. 털이 촘촘하게 나 있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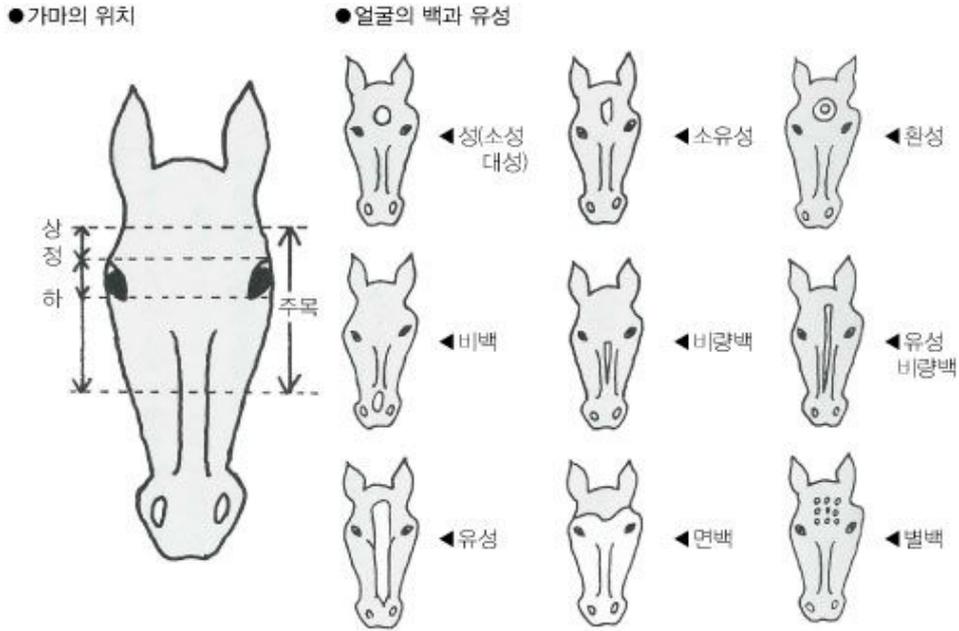
꼬리의 좋고 나쁨도 눈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다. 확인하기 위해서 꼬리를 잡고 힘차게 끌어 당겨 본다. 이때 말이 싫어해서 저항하는데, 그때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는 것이다. 저항하는 힘이 셀수록 좋다. 꼬리를 움직이는 힘이 세다는 것은 허리가 튼튼하다는 증거이다.

#### 필자가 좋아하는 얼굴

물론 말은 얼굴로 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타입은 있으므로 몇 가지 관점을 소개해 보겠다.

- 콧날 : 말의 얼굴을 옆에서 보면 대부분의 말은 콧날이 반듯하게 뻗어 있다. 이런 말은 필자의 개인적인 느낌인데 영리해 보인다. 그러나 말 중에는 콧날이 웬지 불룩해 보이는 말과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말도 있다. 이런 말은 아무리 봐도 영리해 보이지 않는다.
- 얼굴의 유성과 백 : 앞에서 보면 얼굴에 유성과 백이 있는 말이 많다. 심보리루돌프처럼 한가운데서 반듯하게 흘러내리는 유성은 매우 영리해 보이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으면 얼굴이 일그러져 보인다. 그리고 흰 얼굴 중에서 한쪽이 너무 흰 얼굴도 필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눈 모양 :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할 만큼 분명히 기질을 반영한다. 따라서 눈초리가 너무 치켜 올라 간 말은 불합격시킬 때도 있다. 그리고 말의 눈은 보통 까만데 흰눈동자가 많이 보이는 말은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다. 이런 눈을 ‘고래눈’이라고 한다. 실제로 흰눈동자가 많이 보이는 말은 기질이 나쁜 경우가 많다고 한다.

- 가마 : 말을 사는 사람들은 주목정주목상(珠目正珠目上)이라고 하여 가마가 눈과 같은 위치에 있거나 눈보다 위에 있는 말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 위치에 가마가 있는 말 중에 명마가 많다고 하지만 그것이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림 1-14]

### 걷는 모습 보기-기질과 성질

이렇게 측면과 앞뒤에서 관찰했을 때 흠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번엔 말을 걷게 한다. 걸음걸이는 전신을 사용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나쁜 곳이 있으면 움직임일 때 나타난다.

앞에서는 다리를 뺏는 모습, 뒤에서는 허리의 움직임을 본다

먼저 말의 걸음걸이는 말의 정면에 서서 다리를 내딛는 모습을 본다. 앞다리가 곧은지는 이미 점검했지만, 말 중에는 발굽을 깎아 조정해서 다리가 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교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심할 수 없다. 그러한 것들은 말이 걸을 때 바로 알 수 있다. 아무리 교정을 했다고 해도 걸을 때는 본래 휘어진 쪽 다리가 반드시 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리가 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가 나쁜 말은 부자연스러운 버릇이 나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다리를 똑바로 내딛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결점이 있다고 판단해도 된다.

마찬가지로 뒷다리를 내딛는 모습도 확인한다. 앞다리가 걸어간 선을 뒷다리가 똑바로 따라가면 합격이다. 반대로 옆으로 가거나 휘는 버릇이 있는 말은 좋지 않다. 발목을 꺾을 때도 밖으로 빠지거나 안으로 기우는 등 움직임에 흔들림이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한다.

다음으로 말의 바로 뒤에 서서 걷고 있는 말 허리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허리는 걸음걸이에 맞춰 상하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어색하게 출렁거리지 않는가를 확인한다. 허리에 어색한 움직임이 보인다면 다리 어딘가에 결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좌우 균형이 잡히고 일정한 리듬으로 흔들리면서 걷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 물론 이것은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패독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다

#### 걷는 모습도 측면에서 보는 것이 기본

이렇게 해서 관리인이 끌고 나온 말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정면에서 보고, 말이 자기 앞까지 오면 비켜서서 말을 앞으로 보낸 다음 뒷모습을 본다. 적당한 장소에서 말의 방향을 돌려서 다시 본인 쪽으로 되돌아오는 앞모습을 본다. 이런 요령으로 몇 번 왕복시킨 후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이번에는 조금 떨어져서 걷는 모습을 측면에서 관찰한다. 말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측면에서 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측면에서 볼 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는 패독에서 출주마를 볼 때와 거의 같다. 목의 움직임, 앞다리를 내딛는 모습, 뒷다리를 내딛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받는 인상을 확인한다. 물론 경주에 출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패기나 마무리 상태는 상관이 없다. 게다가 보고 있는 말은 2세마로 아직 별다른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패독을 돌 때처럼 힘 있게 깊이 내딛으며

걷는 말은 그다지 많지 않다. 가끔 깊이 내딛으며 걷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이런 말에게서는 대단한 소질을 직감할 수 있다.

이처럼 자세하게 관찰한 끝에 마음에 드는 말을 고르지만, 기대만큼 잘 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조교를 거듭해도 기대한 만큼 유연하게 잘 달리지 못하거나 투지가 없는 말도 있다. 역시 말은 실제로 달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걷는 모습은 마체 자체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말을 볼 때는 말의 움직임 속에서 최대한 잘 달릴 것을 상상하면서 보아야 한다. 목의 유연한 움직임, 앞다리를 아름답게 내딛는 모습, 생동감 있는 다리의 움직임, 관리인의 움직임에 순응하는 온순함 등 그런 동작 하나 하나에서 경주마로서의 소질을 상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지를 확인한다.

#### 성질 · 기질 보기-온순함과 승부 근성

말의 성질은 경주마의 능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이다. 경매시장에서 2세마를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관점이다. 그리고 말의 성질은 마사에서 끌려 나와 우리 앞에 선 모습을 보여 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 온순한 성질이 가장 중요하다

구미의 경우에는 경매시장에 내놓는 2세마도 상당한 훈련을 받은 말이기 때문에 마사에서 끌려 나온 말은 대개 얌전하게 따라 나오고, 지시하는 대로 멈춰 선다. 말이 순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성질 면에서는 충분히 합격점이다. 그러나 말 중에는 좀처럼 관리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삐를 풀려고 하거나 멈추지 않고 날뛰는 말도 있다. 이런 말을 보고 힘이 넘친다는 식의 평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두말 할 것 없이 불합격이다.

경주마를 살 때는 그 말이 사람이 시키는 훈련을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훈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종적이어야 한다.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온순함이 있기 때문에 경주마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주에 나가서도 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계속 체지당한다면 좋은 성적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 아름다운 동작은 그 말의 영리함을 말해 준다

말은 원래부터 매우 순종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랜 역사속에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어떤 말이라도 대개는 관리인의 말을 잘 따른다. 똑같이 지시에 따라 멈춰서거나 걷고 있더라도 그 말 자체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 더러브렛은 아름다워야 한다고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걸을 때도 부자연스러운 느낌 없이 미끄러지듯 걷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체형과 몸의 유연성에 따라 좌우되는데 거기에는 정신적인 영향도 크다고 본다. 아름답게 다시 말해 움직이는 말은 성격도 온순하고 영리하다.

이 생각을 패독에서 말을 볼 때도 마차가지이다. 큰 경주에서 승리하는 말은 패독에서 보아도 기품과 박력이 있다. 다른 말과는 격이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패기는 육체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뛰어난 정신력을 나타낸다.

#### 성질이 나쁜 말 · 겁이 많은 말

날뛰면서 관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말은 말할 가치도 없지만, 걸보기에는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성격이 나쁜 것 같은 말도 있다. 지시를 따르는 속도에 무리가 있다거나 적당한 장소까지 걸어가서 방향을 바꾸게 하려고 하면 주춤거리거나 하는 동작을 보면 유순한지를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걷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고 웬지 둔한 인상을 주는 말은 머리가 나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눈매만 봐도 성질이 나쁜 것 같은 말도 있다.

그런데 성질은 나쁜 것 같지 않아도 매우 겁이 많은 말이 있다. 마사에서 끌려 나왔을 때 겁먹은 것처럼 보인다. 주위에 말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고 자동차도

다니므로 불안해한다. 이런 말들은 갑자기 조금 큰 소리가 나면 겁에 질려 날뛰기도 한다. 말은 원래 겁이 많은 동물이지만 경주에서는 나름대로 배짱도 필요하므로 너무 예민한 말은 경주마에 적합하지 않다.

승부근성은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알 수 없다

경주마에 적합한 기질로 뛰어난 승부근성을 들 수 있다. 상대와 치르는 경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투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말은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좀처럼 근성을 내보이지 않는다. 한 마리를 더 데려와 같이 세워 놓으면 알 수 있지만 경매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늘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을 간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목장에서 어린 말을 보면 무리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각각의 근성을 잘 알 수 있다. 말의 집단에서 한 마리가 선두에 서고 다른 말들은 모두 우두머리 말을 따라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말들을 인솔하는 우두머리는 기질이 강한 말이다. 배짱과 통솔력이 있고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는 투지를 갖추고 있다.

물론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말이 경주마로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심보리루돌프는 육성목장에 있을 때 집단에서 말이 운동을 하면 다른 말을 제치고 선두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페이스를 지키며 달리는 타입이었다고 한다. 어떤 말에게든 지지 않으려는 우두머리 타입의 강한 기질은 경주에서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말 무리에서는 우두머리지만 인간에게는 순종

필자는 대단한 우두머리 말을 한번 본적이 있다.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 갔을 때였다. 2세마 방목장을 보러 갔는데 그 친구가 암말 한 마리를 가리키며 “이 말을 잘 살펴봐. 아주 대단한 녀석이야”라고 말했다. 풀잎이라도 조금 쥐 보라고 하기에 풀을 뜯어서 내밀자 암말이 다가와서 스스로 씹어 먹었다. 이번에는 곁에 있던 말에게 풀을 내밀었다. 그러자 풀을 먹으

려고 머리를 내민 말을 암말이 옆에서 걷어차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필자가 내민 풀을 가로 채고는 흡족해했다. 그렇게 하고 있자니 다른 말들도 필자 쪽으로 다가오다가 암말을 보고는 후다닥 달아나 버렸다. 왜냐하면 그 암말이 노려보았기 때문이다.



◀목장에서 육성되는 2세마

[사진 1-12]

필자는 태연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말에게 풀을 주려고 해 보았다. 그러자 암말은 재빨리 눈치를 채고는 멀리서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풀을 받아먹으려던 말은 겁에 질려 도망쳐 버리고 풀은 또 암말의 차지가 되었다.

좀 달리게 해보자며 친구가 크게 손뼉을 치자 말들이 일제히 달려갔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암말이 선두에 서서 앞지르려는 말이 나오면 가차 없이 위협을 가했다. 심술궂은 말이지만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들은 암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 말이 달리는 쪽으로 다른 말들이 모두 쫓아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두머리는 무리 속에서는 기세등등해도 인간에게는 한없이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말에 푹 빠졌다. 그 후 간사이(關西)에 들어갔는데 활약이 기대된다.

## 경주마 제대로 보기

지금까지 경매시장에서 말을 보는 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패독에서 조교가 잘 되고, 패기가 넘칠 뿐 아니라 앞서 설명한 점들과 딱 들어맞는 말을 발견했을 때는 참 좋은 말이라고 나도 모르게 감탄하게 된다.

### 말을 볼 때는 미래를 내다 봐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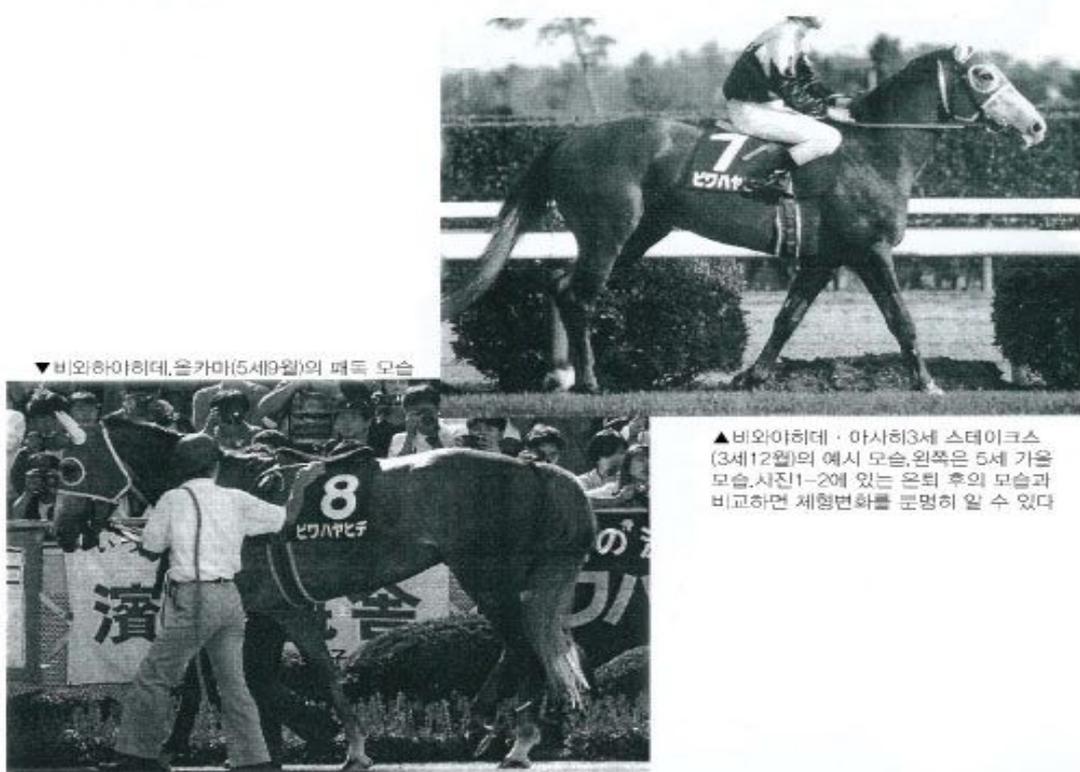
경매시장에 나온 2세마를 볼 때 미래를 상상하며 평가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세마뿐만 아니라 패독에서 출주마를 볼 때에도 역시 미래를 내다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마경주는 물론이고 4세마가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로 접어들수록 눈부시게 성장해가고 나이가 들어도 성장은 계속 된다. 경주마가 육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5세 가을이라고 하는데 성장하는 것은 육체뿐만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장이 완성단계에 이르는 시기의 경주마는 나이가 6세나 7세가 되도 체중을 늘려 마체가 커진다.

따라서 패독을 볼 때는 오늘 경주의 우승마 뿐 아니라 오늘은 우승하지 못해도 다음 경주의 우승 후보마, 그리고 대상경주에서 우승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말을 찾으면서 보면 경마는 훨씬 더 재미있어진다. 예를 들면 1994년 아사히 3세 스테이크스에서 필자는 후지키세키를 후승후보마로 점찍었는데, 복병이라고 생각했던 스키캡틴<sup>31)</sup>이 출주마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산마가 아니었다면 4세 클래식 경주에서 우승했을 것이다. 이 말은 긴 목이 매우 유연하고 등의 선도 완만하여 아름다우며 몸의 움직임이 무척 부드러웠다. 무엇보다 허리가 멋지게 생겼는데 엉덩이 각도가 누워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다만 어깨가 누워 있고 몸통이 길어서 1600m 경주에서는 후지키세키가 우승할 것이라 예상했다. 일찌감치 미국원정을 결정했는데 이 정도의 말이라면 미국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 본다. 메지로마크인과 같은 명마가 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31) 1992년산. 미국산 일본 경주마. 일본 조교마중 최초로 켄터키 더비에 출주. 통산성적 6전3승

좋은 말은 계속 변한다

하지만 모든 말이 기대만큼 성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예상외로 성장한 말도 있다. 최근의 비와하야히데는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비와하야히데를 처음 본 것은 3세 가을이었다. 간사이(關西) 최고의 명마라고 들었지만 조교에서는 형편 없이 달리지 못했다. 필자가 봤을 때는 목이 두껍고 어깨와 허리도 발달해서 포동포동한 모습이었다. 근육이 발달해 있으므로 단번에 치고 나가는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땅딸막한 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힘 있는 단거리마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4세 클래식 경주를 치르는 동안 이 말은 계속 변해갔다. 4세 가을에는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하고 머리를 가우똥거릴 정도로 몸통이 길어지고 몸도 유연해졌다. 원래 얼굴이 크다는 지적도 받았던 말이었는데 몸이 커지면서 얼굴 크기가 눈에 띄지 않게 된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처럼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대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와하야히데,올카마(5세9월)의 떠들 모습

▲비와하야히데·아사히3세 스테이크스(3세12월)의 예시 모습,왼쪽은 5세 가을 모습,사진1-2에 있는 은퇴 후의 모습과 비교하면 체형변화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진 1-13]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말은 변한다. 첫인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말은 드물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명마의 모

습이 되어간다. 도쇼보이<sup>32)</sup>, 심보리루돌프, 메지로마크인도 변하면서 성공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우승하지 못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변화가 적고 아름다움과 박력도 베어나지 않거나 나쁘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 어렸을 때의 박력과 유연함을 잃고 눈에 띄지 않게 되면 평범한 성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 아랍계말에 대해서

필자가 경매시장에서 보는 것은 더러브렛 뿐이지만 더러브렛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경주마의 3대 시조<sup>33)</sup>라고 일컬어지는 세 마리의 아랍계말이 있다. 아랍계말은 더러브렛의 원종이다. 3세기에 걸쳐 빨리 달리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 계량되어 온 더러브렛에 비하면 속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힘과 지구력에선 오히려 뛰어나다. 마체는 더러브렛보다 작은 말이 많고 몸통도 짧은 체형이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말을 보는 법은 더러브렛과 같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독자가 말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필자로서는 기쁠 뿐이다. 중앙경마는 전국에서 10 곳, 지방경마의 경우에는 30 곳의 경마장이 있다. 그곳에서 패독을 돌고 있는 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모두 경마 관계자에게 선발된 우수한 말이다. 다만 패독은 경매시장은 아니다. 마무리 조교와 패기 등 패독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

32) 1973~1992. 70년대 중반 텐포인, 그린그라스와 함께 TTG 시대를 이끔. 천마라고 불림

33) 아랍말과 유럽말의 교배로 더러브렛을 생산하였는데 시조가 되는 세 개의 혈통.  
다알린 아라비아-5대손 이클립스에 의해 크게 발전 하였고 전세계 더러브렛의 95%가 이 후손이다  
바이얼리터크-1968년 터키산, 5대 후손 헤로도 이후 번창  
고돌핀 아라비아-1724년 북아메리카

## 참고자료

- 「호스 컨포메이션 핸드북 (2011)」, (2011), 한국 마사회 말등록원
- Ken Mclean(2004, 이 광찬 번역), 「유전자의 전승」, 한국마사회 마사등록팀
- 이 중원, 이 왕식, 강 정부 공동번역 (2004), 「말 영양소 요구량-6차 개정판」, 한국마사회 제주 목장
- Ken Mclean(2010, 이 광찬 번역), 「경주마의 스피드 디자인 I」, 한국마사회 말등록원
- Frank Mitchell, Ph D.(2009, 이 광찬 번역), 「경주마 생산 이론」,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
- Ken Mclean(2009, 고 은아 번역), 「클래식 우승마의 추구Ⅱ」, 한국마사회 말등록원
- 永田雄三(2001), 「경주마의 육성과 영양」, 한국마사회 제주경주마 육성 목장  
<http://db.netkeiba.com>  
<http://www.kra.co.kr>

## 日文抄録

著者伊藤友康は、1959年ホースニュース社に入社し、競馬専門紙「馬」の編集に携わることで、初めて馬と接した。1985年から競り市で2歳馬を見始め、1988年から20年あまり競馬の解説を担当した。本書ではそこで培った馬の見方について、著者の感覚と科学的な根拠に基づき、詳しく説明している。

本書は第1章「サラブレットの形を見る」、第2章「パドックで出走馬を見る」、第3章「返し馬で馬と騎手を見る」、第4章「レースを見る・馬の走りを見る」、第5章「調教の意味をつかんで馬の動きを見る」で構成されている。特に第1章では馬の骨格図を示し、骨格が体型・姿勢とどのような関わりがあるのか、馬を評価する際に注目すべき点は何か、などについて述べている。このように馬の望ましい特徴と欠点が見分けられるよう、様々な絵や写真を用いている点が、本書の特徴といえよう。

そうした本書の記述は、競走馬を買う馬主や種牡馬・繁殖牝馬を選ぶ生産農家に「いい馬」の基準を示すものと期待される。

韓国では、1984年に韓国馬事会によって直営の種馬牧場が開設され、1991年にはそれまで輸入に頼っていた競走馬の国内生産を本格的に進めるため、競走馬中長期計画が立てられた。この計画によって1992年に37の競走馬生産農家が選ばれ、現在、韓国馬事会が選定した全国の143の農家のうち116が済州にある。しかし、済州では昔から済州馬を飼っていた農家を中心になって競走馬を飼い始めたため、馬の見方について専門的に学んだ農家は極めて少ない。韓国馬事会と競走馬生産者協会が農家の教育を行っているが、農家が馬を理解するのに役立つ書籍は少ない上に、学術的で難しいことも多い。

そうした中、本書は馬の見方について、長期にわたって培われた著者の目と科学的な理論に基づき、様々な絵や写真を利用し説明しているため、農家と馬主が馬を理解する上で役立つものと期待してやまない。